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월보

2011
제224호(통권443호) **10**

- 장학특집 / 독도 사랑 교육
-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
- 전문가초대석 / 자신만만형의 학습지도 방법



2011년도 경남 교육정책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녹색 성장 환경교육
4. 기초 질서 생활화
5.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6. 교원 전문성 신장
7. 학교경영의 책무성 강화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1. 10 제224호(통권 443호)



- 02 권두언
- 04 교육감 동정
- 05 장학현장
- 06 장학 칼럼
- 08 **특집 / 독도 사랑 교육**

- 독도교육의 의미 / 고영진
- 교사가 담당해야 '나는 교사다' / 남창일
- 울릉도와 독도는 본속관계(本屬關係)이다 / 박희두
- 시마네현(島根縣)告示40호와 일본의 독도인식 한계 / 곡진오
- 독도교육선언의 의미와 독도교육 추진 계획 / 김영애
- 직접체험자가 소개하는 독도 간접체험기 / 변현성
- 독도는 이성적일 수 있는가 / 김대진
- 늘 푸른 동해를 지키는 영토 수호의 혼불! 독도를 찾아서 / 이재돈
- 독도를 배우고, 가슴에 담다 / 진태경
- 동해에 울려 퍼진 독도사랑 골든벨! / 안창욱
- 독도 사랑 체험활동을 마치고 / 황영란

31 좋은 수업 다지기

- 말하기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창의 놀이 / 안태경
- 성공적인 수업 전략을 위한 TIP / 엄성욱
- 날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라면 / 이복희

40 교육정보

- 차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 정운영
- 미국의 우수학교 블루리본 스쿨에서 배우다 / 구현숙

47 명품학교, 명품교육

- Wee 클래스로 찾아가는 희망 학교 / 안수진
- 꿈은 이루어진다! 꿈 실현의 도약대 창원신월고 / 전외열
- 전교생이 만지고 보고 느끼는 체험학습 정말 신나요! / 서미옥
- 학교와 학부모가 한 마음이 되어 행복한 아림교육을 실현합니다 / 박성체

58 전문가 초대석

- 자신만만형의 학습지도방법 / 변경오

60 미담사례

- '글로벌 시민학교' 인도 봉사활동 / 이명숙

63 참여마당

- 교 원 - 영재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 최미
- 학습지도연구대회의 새로운 물결 / 김선임

69 지상갤러리

- 학부모 - 독서지도사 과정을 마치며 / 박정희
- 장미 / 황수희
- ▶ 표지사진 - 박재철(함안중앙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11월호 모집 기간 : 2011년 10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의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1년 10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이국식 • 편집주간 : 교육과정과 장학사 박정화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독도교육의 의미

벽공(碧空), 고개 들어 올려다보는 푸른 하늘이 마음까지 맑게 해줍니다. 가을은 결실이 가져다주는 넉넉함에 마음이 절로 부자가 되고 바람이 주는 청정함은 몸에도 기운을 불어 넣어 줍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도 행복한 계절이 되기를 기원하며 10월의 경남교육을 열어봅니다.

경남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3일, 경남의 학생들을 비롯한 교직원·경남도의회 교육위원 등 60명과 함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푸른 수평선밖에 없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한 점 섬 독도에서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독도교육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독도교육 선언문은 독도사랑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역사의 힘이 진실에 있음을 교육으로 발현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여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왜곡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면서 교육을 통해 역사의 진실 추구하고 독도수호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도 담고 있습니다.

세계지도에서 동해를 찾는 일은 참 힘이 듭니다. 없어진 동해 대신 그 자리에 일본해가 있습니다. 독도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본과의 전쟁은 해마다 반복됩니다. ‘동북공정’이란 이름으로 전개되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전쟁도 치열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가 세계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이 너무 많은 결과이며 그 원인은 역사 왜곡에 있습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위한 변명」을 쓴 블로흐는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항복하자 레지스탕스 지도자로 활약하다가 1944년 체포되어 총살을 당합니다. 역사교육학자 김한중은 자신의 저서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에서 ‘역사는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올바른 행동의 정당성을 증명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역사학자였다고 그를 판단했습니다. 역사가 다루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고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블로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사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저자는 역설합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왜곡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왜곡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의 불같은 대응은 단기적이고 단발성에 그쳤습니다. 우리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독도교육 선언문을 그 출발점으로 국토사랑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독도 문제, 나아가 역사왜곡에 대한 교육적 대처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국토사랑 교육을 주요 정책과제로 하는 ‘독도교육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독도교육 기반조성, 교원 독도교육 역량 강화, 학교 독도 교육자료 지원 강화, 학생참여·체험위주 맞춤형 교육 등 4가지의 내용으로 추진되는 ‘독도교육 로드맵’은 교육현장에서의 독도교육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이유 없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도교육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국토사랑 교육이 유·무형의 이유 있는 흔적을 좇아 역사왜곡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바로잡아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1. 10.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 01 좋은학교박람회
- 02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
- 03 경남교육청 새마을문고 독서운동 협약
- 04 굿네이버스 성금기탁
- 05 전국체전 참가 선수 격려
- 06 베트남정보화연수단 본청 방문



06



07-



08-



10-



09-



11-

- 07 김해교육지원청 - 성폭력예방 인형극
- 08 함안교육지원청 - 2012. 수업연구대회
- 09 경남유아교육원 - 어린이뮤지컬 「팡이의 총치 소탕 작전」 공연
- 10 낙동강학생수련원 - 심폐소생술 프로그램 신설
- 11 밀양교육지원청 - 교육장기 태권도 대회 개최

교사가 당당해야! ‘나는 교사다.’



남창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과장

최근에 초·중학교 교사의 수업연구대회를 각각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구체적인 수업 장면에 대한 소감을 적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면이기에 차치하고 모두 상당한 수준의 특색 있는 수업을 공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같은 제재 또는 동일한 차시를 지도하면서도 마치 다른 과제를 지도하는 것처럼 다양한 수업을 전개하는 것을 보면서 “수업은 예술이다.”(Instruction is Art)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떠올렸다. 뿐만 아니라 예전과 달리 젊은 교사들의 참여도가 높고, 수업을 참관하는 교사들의 태도가 매우 진지하다는 점도 뚜렷한 변화로 보았다. 선생님들의 그런 작은 변화의 몸짓들이 우리 교육현장의 영원한 숙제로 알려진 교실 수업 방법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다가왔다. 2% 법칙이란 것이 있다.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모르지만 어떤 생태계에서 변이가 일어나려면 외계로부터 2% 정도 다른 종이 유입되어 그 활동이 활발해질 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2% 수준을 변곡점 또는 임계점이라고도 한다. 우리 경남의 교사가 약 33,000여 명으로 보면 수업혁신의 임계점은 크게 잡아 700여 명이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들 교사들이 익숙해진(?) 기존의 수업의 틀을 깨는 일에 앞장서 노력한다면 교실 수업 개선은 희망적인 이야기가 된다.

교사들은 누구나 수업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기에 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 무슨 일을 하든 한 삼년만 계속하면 당구풍월(堂狗風月)의 수준은 가능하고, 10년 정도면 그 방면에는 소위 도가 트여 전문가가 된다. 그런데 수업은 10년은 커녕 30년을 해도 어렵고 두려워 진다니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수업이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기도 하지만 언뜻 생각하기에 딱 부러지게 ‘이런 게 좋은 수업’이라는 표준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수업 평가 기준도 있고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도 많아서 어느 정도 합의는 되어 있지만 일상의 교실 수업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수업연구대회에서 공개되는 수업처럼 잘 짜여지고 기획된 수업은 한 달에 한 차시 공개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모든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다. 오디션적인 수업이 아니라 일상의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수업능력 보다는 수업을 지원하는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선생님들 스스로가 수업문화를 바꾸어 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수업 공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수업 참관의 기회를 더 늘리고, 수업장학(수업 컨설팅)에 적극 참여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문화가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업 분석 기술과 훈련, 그리고 수업 협의회 및 수업 토론 기술을 연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의 수업을 자신 있게 남에게 보여주고 동료교사의 수업도 많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자기 수업 결손을 막는다는 공색한 핑계로 남의 수업 참관을 외면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남의 수업을 보고 자신의 수업 중 하나의 장면이라도 발전된다면 그것은 결코 수업결손이 아니다. 현재 맡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덕이고 미래에 만날 아이들에게도 이익이다. 오히려 크게 남는 수지맞는 장사다. 수업 컨설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수업 분석을 하고 전문적인 수업 협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 때부터 비로소 선생님들의 교실 수업 방법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교사라면 누가 뭐래도 가르치는 일에 전문가여야 한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보다 수업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업에 왕도는 없다. 그렇다고 원리나 이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寫蘭有法不可 無法亦不可라고 했다. 수업도 마찬가지다. 좋은 수업을 위한 환경과 문화를 개선해 가면서 동시에 수업이론과 실재를 익혀 자기만의 수업으로 다듬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 인기 있는 TV 예능프로그램 중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나는 가수다’라는 말 속에는 가수로서의 당당함과 강한 자부심이 느껴져서 좋아한다. 다른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미 프로로 잘 알려진 가수들이 서바이블 게임을 벌이면서 적당하게 긴장하고 즐기면서 더욱 프로답게 발전하는 모습이 좋아서 놓치지 않고 본다.

‘나는 교사다!’ 선생님이 모두 수업 전문가가 되어 자신 만만하고 당당해야 교육이 산다. ‘나도 교사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울릉도와 독도는 본속관계(本屬關係)이다



박희두
청주 서원대학교 교수

울릉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울릉도와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 독도는 우리나라의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항상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영토이다. 그러나 독도가 동해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해역 설정의 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자 우리의 동해를 지배하려는 일본의 영토적 야욕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증명이 되지만 자연지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지리적인 면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1. 독도의 자연

독도는 북위 37° 14' 18", 동경 131° 52' 33"에 위치한 동해상의 소군도로서 울릉도 동남방 92km, 일본의 오키도 서북방 160km에 있다. 독도의 지질은 안산암과 현무암 및 화산재가 굳어서 이루어진 응회암과 집괴암으로 되어 있어 암질이 연하여 풍화와 침식에 약하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두 섬을 주도로 하고 그 주위에 산재하는 36개의 암도와 암초로 구성된 소규모의 군도이다. 아마도 독도가 화산활동에 의하여 처음 형성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큰 섬이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침식을 받아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분리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침식을 받은 연질의 암석은 해안에 다양한 형태의 지형을 만들고 있으며, 그 중에도 특히 파도의 침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해식동굴이 많다.

동도의 중턱에 수십평의 평탄지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섬의 경사가 60° 이상으로 급하고 험할 뿐만 아니라 해안은 오랜 해식으로 인하여 단애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풍파가 세고 암초가 많으며 강한 해풍으로 인하여 독도에는 한 그루의 나무도 없는 무인도였다.

그러나 독도 부근에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여 고래, 상어, 오징어, 방어 등의 어족이 풍부하고 독도 주변에 무수히 산재되어 있는 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 등이 많아 매년 여름이 되면 울릉도 어민이 일시적으로 출어하여 고기잡이에 종사하여 왔다. 때문에 독도는 울릉도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어민들의 어업근거지로서 예부터 생활터전이 되어온, 명실상부한 우리의 영토이다.

2. 해류의 흐름을 봐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대한 해협을 통과하는 동한해류는 동해안을 따라 독도방향으로 북상하는 난류이다. 이 해류는 울릉도 북쪽 해역을 지나면서 동쪽으로 흐르거나 독도 해역으로 남하한 뒤 일본 오키군도 부근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흐른다. 이 때문에 대한해협에서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흐르는 해류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시계방향의 소용돌이를 이용해 한반도에서 울릉도와 독도, 오키군도로 가기는 쉽다. 하지만 일본 쪽에서 독도 방향으로 오기 위해서는 해류의 흐름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물며 무동력의 배를 이용하던 시대에는 더욱 힘들고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가 동한 해류의 흐름을 오키군도 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오키군도에서 독도쪽으로 항해를 하기에 더욱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 그림 1. 동해의 해류도 〉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 쪽에서 독도로 향하는 해류는 아예 없어 바람과 해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의 선박으로는 독도에 이르기가 어려웠다. 반면 우리나라나 울릉도민들은 해류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독도에 도달할 수 있어 독도를 관리하고 이용하면서 실제적인 지배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심지어 전라도 사람들도 어족이 풍부한 독도 근해로 해류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었다.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전라도 사투리인 ‘뿔’을 ‘뚝’이라고 하는데서 ‘뿔섬’을 일컫는 말 ‘뚝도’가 유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남도 어민들이 해류를 따라 울릉도 근해로 많이 진출하고 해류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어 울릉도가 한 때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남도에 속하기도 하였다.

3. 일본인의 죽도 호칭은 의도적이다.

우리의 독도에 대한 시대별 명칭은 ‘우산도’, ‘삼봉도’, ‘송도’, ‘부졸·륙크’, ‘가지도’, ‘리양쿠르트·륙크’, ‘팔라다·륙크’, ‘호네트·륙크’, ‘죽도’, ‘독도’라는 명칭으로 10개나 된다. 일본인이 우리보다 1천년 이상이나 뒤늦게 붙인 독도에 대한 원래의 호칭인 송도를 그뒤 갑자기 울릉도에 대한 그들의 호칭과 바꾼것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한 영토욕에 사로잡힌 악의적인 조치인 동시에 일본이 그때까지 독도에 대한 관심과 연고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인들은 최근에 와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명칭을 혼돈하여 부르게 된 사실에 대하여 일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혼칭의 이유가 우연적이 아니라 독도를 영유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는 점에 있다.

만약 일본인들의 주장대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독도를 발견하고 관리하였다면 우리보다 먼저 독도에 대한 호칭이 있었어야 했을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독도에 대한 명칭이 다섯 가지에 이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은 시대에 따라 독도에 대한 관심과 이용도가 높았음을 시사한다.

4. 독도의 해저지형

독도는 주변 수심이 약 2,000m 정도이고 독도의 밑바닥의 지름은 20~25km 정도이다. 독도는 실제 하나가 아니라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일련의 화산섬이다. 독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쪽에 2개의 화산섬이 해수면 아래에 평평한 해저화산 형태로 존재한다. 독도와 2개의 해저산은 각기 다른 모양을 보이는데, 독도의 기저부 형태는 사각형이고 독도 동쪽에 바로 붙어 있는 해저산은 삼각형 모양으로 연장되어 발달한다.

과거에는 독도를 생성시킨 화도가 동도에 있는 것으로 생각 하였으나 구성 암석의 두께 변화나 암상의 변화 및 단층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독도를 생성시킨 화도는 독도에서 북동쪽으로 수 백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독도는 화산의 남서쪽 화구륜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독도는 화산체 형성 초기에 만들어졌던 화구륜 상의 한 지역으로 여겨지며 육지에서 해저로 이어지는 암반지역은 화구륜의 일부가 파도침식이나 자연붕괴 등으로 유실되고 남은 잔류체로 추정된다. 독도 해산의 주변에는 많은 해저곡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해저곡들은 심해의 분지로 연결된다(그림. 2참조).



〈그림 2. 동해의 해저 지형〉

(그림. 2)를 보면, 동해 전체는 하나의 셋트로 연결되어 있으며 일본 열도와는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도 주변에는 많은 해저곡들이 형성되어 있고 독도의 기저부는 수심 약 2,000m 부근이며 그 외곽은 울릉 분지와 울릉 분지 간 평원 쪽으로 2,400m까지 완만하게 깊어지며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



시마네현(島根縣)告示40호와 일본의 독도인식 한계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1904년 러일전쟁을 대비해서였다. 당시 일본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러시아 군함의 동해 항해를 감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도가 점차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이라는 것을 인식한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 독도의 자국 영토 편입을 선언하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행하게 된다. 전후 일본인들은 동 고시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인용해왔다. 그러나 일본인 자신들도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영토편입 조치의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동 조치의 효력에 대해 일본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첫째 주장은 무주지 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독도는 이전부터 주인이 없는 땅 즉 무주지(terra nullius)로서,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고유영토설(固有領土說)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고, 1905년 조치는 그 사실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1905년 조치의 법적 효과에 대해 일본 정부조차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영토설’이 혼합된 기괴한 논리를 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의 내각결정에서 “이 무인도(독도)는 어떤 국가의 소유로도 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형적이 없다”라고 하며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정부는 독도는 ‘고대로부터 일본영토와 불가분의 일부’라 하며 기존의 무주지 선점론에 고유영토설을 혼합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1953년 7월 13일자 및 1954년 2월 10일자 일본 측 구상서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일본인들은 1905년 불법적인 독도의 일본 영토편입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대로부터 자국의 고유영토였던 이 섬을 근대에 와서 다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기괴한 논리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논리를 억지로 결합 시켜 놓고도 아직까지 일본은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 논리의 첫 번째 한계이다.

두 번째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발표된 당시 독도는 결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 자체도 영토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의 유효한 법률적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증거로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행해졌을 당시 독도가 무주였다는 일본 측 주장은 자기부정의 논리이다. 1877년의 태정관 지령의 예로부터도 증명될 수 있듯이 한국(조선)의 독도 영유권은 일본 정부(도쿠가와 막부와 메이지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던 사실이다. 특히 시마네현 고시 5년 전인 1900년에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았다. 당시 대한제국은 황실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군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죽도(대선, 울릉도 연안의 소도), 석도(독도)까지 관할토록 정하면서 울릉도의 행정단위를 군으로 승격시켰다. 이 조치는 대한제국정부가 서울주재 일본 공사에게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직후에 취해졌으며, 동 칙령의 내용은 관보에도 게재된 만큼,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합리성을 결여한 변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증거로는 위의 설명에서 추론될 수 있듯이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섬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대한제국정부에 독도 영토편입의 의사를 알리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876년에 오가사와라 제도(The Bonin Islands)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 전 동경에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공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도 편입 시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러일전쟁을 통해 독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국 영토에 편입시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한일 간에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 국제법적 근거, 한국(당시 조선)과 일본(당시 막부) 양국 간에 교환된 공식문서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과 막부 간에는 일본 스스로도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일본은 제국주의적 영토침탈의 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을 들먹이며 무의미한 자기소모적 논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독도교육선언의 의미와 독도교육 추진 계획



김 영 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관

1. 독도교육선언의 의미

‘역사의 힘은 진실에 있으며 그 진실은 교육을 통해 발현된다.’ 독도교육선언문의 첫 문장이다. 2011년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우리 도내 초·중·고 학생, 교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언론인 등 총 61명이 함께 참여한 ‘2011 독도사랑 체험활동’은 독도교육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매우 뜻 깊고 보람된 행사였다.

2011년 8월 23일 독도 교육의 새 장을 열기 위해 독도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독도사랑·나라사랑의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독도소망카드를 독도경비대에 전달하고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께서 독도교육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독도 수호의 결의를 함께 다짐하였다.

특히 독도 현지 체험 방문의 결실로 전국 최초의 독도교육선언이 나오게 된 것은 참으로 뜻이 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독도교육선언으로 독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된 데에도 큰 의의가 있지만, 독도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일시적·감정적 대응에서 벗어나서 역사의 진실 추구하고 인류평화·공존을 지향하는 지속적 독도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데 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독도에서 발표한 최초의 독도교육선언문은 교육을 통한 인간의 소중한 가치 실현 및 인류 발전에 대한 헌신, 국토사랑을 통한 민족 자긍심 함양 및 정체성 확립,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인류평화와 상생의 가치관을 지닌 세계시민 육성, 영토주권 강화 의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독도교육선언을 기초로 하여 국토사랑 교육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연중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독도 교육 추진 계획

가. 추진목표

- 우리 땅 독도 수호를 위한 계기교육 활동 강화로 영토 수호 의지 함양
- 다양한 체험 위주 교육 문화 활동으로 학생들의 독도사랑 나라사랑 의식 내면화 도모
- 독도방문 체험학습을 통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영토의식 함양

나. 추진계획

1) 독도교육 기반 조성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현장교원과 사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독도교육 업무 추진 TF 팀을 상시 운영하고 독도 관련 기관 간 지속 이행 가능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독도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독도교육을 보다 상세히 명기할 계획이다.

2) 교원 독도교육 역량 강화

현장교원 중심의 자생적 독도교육연구회를 지원하여 학교현장의 독도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관리자 및 교사 대상 독도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도내 초·중·고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독도교육 토론회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독도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3) 독도교육 자료 지원 강화

학교급별로 학생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모은 독도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활용 독도교육 자료를 공유할 것이다. 또한 독도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학교현장에 확산시켜 나갈 것은 물론 유공교원을 포상하여 독도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4) 체험위주의 맞춤형 교육 강화

우리 교육청은 연중 독도사랑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학교의 우수 국토사랑 체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 중심의 자발적 독도사랑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이 동아리가 시군단위 독도교육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국 최초의 독도교육선언을 기념하여 독도교육선언일(8월23일)이 속한 한 주간을 독도교육 주간으로 지정하여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교육활동을 권장해 나갈 것이다.

□ 2011년 8월 23일 독도현지에서 발표한 독도교육선언문 전문

독도교육선언문

역사의 힘은 진실에 있으며, 그 진실은 교육을 통해 발현된다. 오늘 우리는 국토의 동쪽 끝, 독도에서 나라 사랑의 실천의지를 다지고, 올바른 역사관 확립으로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고 인류 발전에 헌신한다.
1. 우리는 국토 사랑을 통해 민족 자긍심을 고양하고 정체성 확립에 노력한다.
1. 우리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인류평화와 상생의 가치관을 지닌 세계시민 육성에 매진한다.
1. 우리는 국토사랑 교육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데 앞장선다.

2011. 8. 23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 일동

직접체험자가 소개하는 독도 간접체험기



변 현 성
경상남도의회 의원

최근 우리나라 동쪽 끝 땅인 독도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난 8월, 방학기간을 이용해 '교육감과 동행하는 독도체험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18개 시·군의 초·중·고에서 선발된 학생체험단을 중심으로 꾸려진 이번 체험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독도체험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번 체험에 초청되어 2박 3일 전 일정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의 체험에서는 우리 역사 최초로 '독도교육선언문'이 발표되어 우리 경남은 물론, 국제사회에 주는 의미 또한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단순한 관광체험이 아니라 역사체험의 눈으로 볼 때, 독도체험만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여행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독도는 자기반성의 시간과 미래 설계의 각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 끝 땅에 불과한 이 섬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심 저는 이 아름답고 작은 섬이 역사체험이 아니라 생태체험, 경관체험, 자원체험의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각설하고 이 자리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세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도 관련 책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학생과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 책이고 또 하나는 독도는 우리 땅임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있는 책들입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책들은 전자에 해당됩니다.

독도를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자기 얘기는 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연결한다면, '책읽는 경남'을 추구하는 경남교육이기에 가능한 시도 아니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독도교육자료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 같은 제목으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1996년판(한산 저)이 하나 있고, 2006년판(한도훈 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책 모두 가상의 한 어린이가 독도를 둘러보는 체험기행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초등학생의 독도 입문서로서 안성맞춤입니다. 2006년판 책을 잠시 들여다 보면 즐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태훈이는 생태학자인 아버지를 따라서 할아버지가 계신 울릉도로 갑니다. 그 곳에서 태훈이는 할아버지가 예전에 독도의용수비대원이었다는 사실과 독도를 지키려고 애썼던 의용수비대원들의 활약상을 듣게 됩니다. 또 할아버지로부터 신라시대 독도를 정복한 이사부 장군과 독도를 왜구로부터 지켜낸 안용복 대장의 이야기들을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그리고 생태학자인 아버지와 함께 독도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독도의 자연과 생태계에 대해 배우고 돌아옵니다. 전문작가의 독도 사진컷을 삽입하여 직접 여행하는 맛을 느끼도록 한 것도 이 책의 특색입니다.

■ 「강치야 독도야 동해바다야」 : ‘강치’는 멸종된 우리나라 토종 해양동물로서 바다사자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독도의 옛 이름 중 하나인 ‘가지도’나 지금도 남아있는 ‘가제바위’는 모두 강치가 많았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강치의 멸종은 일본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가족을 얻기 위한 일본인의 마구잡이 포획이 결국 멸종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저자에게 강치는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독도의 상징과 같습니다. 이 책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성 외침보다 독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독특한 책으로써 독도의 지형, 기후, 생태, 역사, 경제, 자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 「독도라이더가 간다」 : 제목과 달리 이 책은 세계여행기입니다. 하지만 이 책만큼 독도가 가진 프런티어 정신을 보여주는 책도 드뭅니다. 이 책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모터사이클로 232일간 3만 4천 킬로미터를 횡단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여행기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한일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불거진 2005년 3월, 서울대 카이스트 아주대에 재학 중이던 4명의 대학생이 독도라이더를 결성합니다. 2006년 3월 미국 LA로 떠나 미대륙 9개 도시와 월드컵이 열린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 터키, 이란, 파키스탄, 중국 등 21개 국을 거쳐 2006년 10월 서울로 돌아오기까지의 독도대장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250cc 모터사이클을 타고 세계의 각 도시를 지날 때마다 거리에서 사물놀이를 연주하고, 각국어로 번역된 독도홍보 책자와 영상CD를 나눠 주면서 외국인들의 지지서명을 받아 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청년의 도전정신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참 ‘독도다운’ 책입니다.

‘독도의 역사는 동해개척사이다.’ 저는 독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이성적일 수 있는가’

- 독도교육선언에 부쳐 -



김대진
KBS 방송국 기자

16년 전 독도로 본적을 옮긴 한 교장 선생님은 터져 나오는 안타까움을 학생들에게 묵놓아 전합니다.

“잘못된 내용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현대사에서 왜곡된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됩니다. 선조들이 잘 지켜온 독도를 왜 지금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가야 되는 겁니까?”

늘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한 여선생님, 거친 동해바다를 넘은 쾌속선 창밖으로 독도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저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아이들도 저마다 독도에 전하는 소망들을 답습니다.

‘DOKDO IS KOREAN TERRITORY’, 2005년 뉴욕 타임스에 실렸던 독도 광고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지속적이며 논리적으로 우리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인 김영랑도 「독을 차고」라는 시에서 ‘우리가 독을 차서 그들의 먹이가 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기자인 저도 어느듯 취재가 아니라 독도 탐방단의 사람으로써 아이들에게 줄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 손가락을 올려 놓습니다.

러시아 발틱함대를 무찌른 러일전쟁의 영웅 도고 헤이하찌, 그는 승전 축하연에서 기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나를 조선의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는 것은 장군에 대한 모독이다. 그가 장군이라면 나는 하사관에 불과하다. 나는 천황과 온 국민의 지원과 지지를 받고 고작 내 전력의 세배에 불과한

발탁함대를 무찔렀지만, 장군은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어떤 지원도 없이 최첨단 병기를 만들고 열 배가 넘는 일본 함대를 무찔렀다.”

그가 내 함대를 가졌더라면 전 세계 바다를 제패했을 것이다. 나를 장군과 비교하는 것은 그에 대한 모독이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이 조금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신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울릉도에서 몇 킬로인지, 어민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국제 해상 기구가 어떻게 표기하는지, 국제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독도는 신화처럼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독도 교육 선언을 했습니다. 교육으로 이성과 논리를 더해 나라와 영토를 사랑하고 지키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화를 지키고 싶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이성적이지 않아도, 그저 신화처럼 살아있는 내 속의 독도를 우리 모두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인 저는 또 기사로 쓰겠지요. 독도 교육 선언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선언은 선언에 불과했다' 라고, 그런데 정말 쓰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독도 교육을 받은 어느 한 친구가 그저 가슴속에 독도를 새겨넣고 있었다’ 2시간 동안 받은 동북아 역사재단 교수의 독도 강의보다, 한 교장 선생님의 터져나오는 가슴 절절함이, 한 여선생님의 하염없는 눈물이. 조금 더 제 가슴에 크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색소폰 연주가 울려나오는 도동항은 태극기 물결로 넘쳐납니다. 몸짓이 어색해도, 목소리가 어울리지 않아도, 우리 일행이 아니어도, 너와 내가 없는 대동의 축제장입니다.

독도 교육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체험 마당에서, 아이들의 어색한 눈빛도 서로 녹일 수 있는 그런 대동의 한마당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전 23승 불패의 신화처럼’ 독도 교육은 그렇게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푸른 동해를 지키는 영토 수호의 혼불! 독도를 찾아서



이 재 돈
김해합성초등학교 교장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을 실천하는 경남교육청은 신비의 섬, 울릉도와 늘푸른 동해의 끝자락에서 영토 수호의 혼불을 밝히고 있는 독도를 탐방하였다. 지난 2011년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2박 3일 간에 걸쳐 교육감님을 비롯한 학생, 교원, 교육위원, 언론인, 독도 전문가 등 60여명의 독도 사랑 탐방대가 함께 체험했던 과정들을 보았다.

첫날(2011. 8. 22. 월) - 울릉도 육로 탐방 및 해양과학 탐구의 날

우리 일행은 아침 6시에 경남교육청에 집결하여 2대의 버스로 상큼한 공기를 가르며 포항으로 향하였다. 오전 9시 40분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선플라워호를 타고 동해의 푸른 파도를 헤치고 오후 1시경에 울릉도 도동항에 도착하였다.

도동항 오른쪽 산등성이를 바라보니 수령 2,000여 년을 자랑하는 향나무(경상북도 지정보호수)가 우리 일행을 반겨주고 있었다. 도동항에서 점심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에는 56.5km에 이르는 울릉도 해안도로를 따라 육로 탐방 및 울릉도 지형에 대한 탐구활동을 전개하였다. 발길 닿는 곳마다 재미나는 전설과 기묘묘한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가 눈길을 끌었으며, 화산 분출의 증거인 주상절리와 성인봉 북쪽의 칼데라화구가 함몰되어 이루어진 울릉도 유일의 평지인 나리 분지 등은 육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지형으로 신비의 섬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었다. 또한, 고대 우산국의 도읍지로 추정되고 있는 울릉도 북면의 현포리고분군은 서면의 남포리고분군과 함께 삼국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오랜 역사를 증명하고 있다. 울릉도는 최근들어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명이나물(일명 산마늘)과 삼나물 등의 산나물이 야생으로 자라고 있어 울릉도민의 경제적 부가 가치를 높이고 있었다.

둘째날(2011. 8. 23. 화) - 울릉도 선상 탐방과 독도 입도의 날

새벽에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니 잔잔한 물결 위로 맑은 태양이 동해를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어 울릉도 유람선 일주와 독도 입도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울릉도를 일주하는 관광선 갑판 위에서 바라보는 오밀조밀한 해안선과 함께 울릉도 4대 비경으로 손꼽히는 코끼리바위, 삼선봉관음도, 쌍용굴, 대풍 감항나무 서식지를 비롯한 기기묘묘한 형상을 한 바위섬들이 푸른 바다와 어울려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고 있었다. 오전에 울릉도 선상 일주를 마친 후 도동 마을 뒤편에 자리잡고 있는 안용복 유적지와 독도박물관 탐방을 마치고, 도동항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하는 독도행 오션플리워후에 오르니 독도 입도의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약 1시간 30분 간의 순탄한 항해 끝에 드디어 선창 밖으로 희미하게 독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20여 년간을 독도지킴이로 활동한 전문가인 강영철교장(사천고등학교)께서는 아침에 이미 독도 입도를 예견했지만 1년에 약 50일 밖에는 입도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신비로운 섬이 아니던가!

독도는 동도와 총면적 187,554km²인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나 홀로 떨어져 우리의 영토를 굳건히 지키며 영토 수호의 혼불을 지피고 있는 독도를 바라보니 감개가 무량했다. 독도에 입도하니 1970년대 초부터 독도에 거주하면서 독도를 지켜 오신 김성도씨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독도경비대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입도 후 독도소망카드 전달식과 간단한 선물 증정에 이어 고영진교육감님께서 ‘독도교육선언’을 낭독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동해의 보석, 독도와 30여 분 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독도에는 온통 우리의 말을 사용하는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독도 탐방객들이었고 대한민국 경찰이 지키고 있는 우리의 영토임이 분명했다. 이번 독도 사랑 체험활동은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독도 방문 행사로써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적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독도를 홀로 두고 뱃길을 돌려 16시경에 도동항에 도착하여 울릉도 내수전망대를 비롯한 울릉도 좌측 탐방을 실시하였다. 저녁 무렵에는 숙소에서 ‘독도 사랑 골든벨’을 실시하여 독도에 대한 지적 이해도와 독도 사랑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날(2011. 8. 24. 수) - ‘독도 사랑 체험활동’ 세미나의 날

마지막 날에는 독도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과 독도 사랑 체험활동을 평가 정리하는 독도 사랑 체험활동 세미나를 숙소 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독도 연구와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신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의 독도 수호의 역사적 배경과 교육 방향에 대한 열띤 강의를 있었다. 이어서 조재규 교육위원장과 창원 KBS 김대진 기자의 독도 사랑 체험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는 덕담에 이어서 교육감님의 총평과 격려 말씀이 있었다. 오후 2

시 40분에 도동항에서 출발하는 셉플라워호를 타고 포항에 도착하니 5시 40분이었다. 우리 일행은 창원으로 가는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출발지였던 경남교육청에 도착하여 간단히 해단식을 마친 후 귀가하니 이미 단잠은 베게 밑으로 가볍게 스며들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영토지킴이, 독도 입도의 감격을 되돌아 보며

그동안 울릉도 여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 해 보았지만 그때마다 일기불순으로 인해 포항 또는 묵호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씁쓸한 기억이 남아 한 번쯤은 꼭 가야 할 비장의 여행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독도 사랑 체험활동'은 쾌적한 날씨와 치밀한 사전 계획 덕택으로 신비의 섬, 울릉도에 대한 갈증 해소와 독도 입도의 행운을 안겨 주었다. 삶의 흔적에서 한국인의 자긍심과 나라 사랑 정신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던 멋진 여정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대풍감 향나무서식지



독도 - 동도



독도 - 서도



고영진교육감님의 독도교육선언문 낭독



안용복장군 공적비에서 묵념



독도박물관 견학



독도 사랑 꽃돌벨



독도소망카드 전달



독도 사랑 의지를 다지며-화이팅

독도를 배우고, 가슴에 담다



진 태 경
진주주약초등학교 교사

뿌옇게 내리앉은 구름 아래 저만치 바다를 가르는 바위섬이 보였다. 독도다! 동해 바다 저 앞에, 파도의 포말 사이로, 유리창 너머 저기에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진 속의 그 독도가 내 눈 앞에 있었다. 독도 수업을 하고, 훈화자료를 만들고, 교수·학습 과정안을 짜면서 수없이 실 시간 독도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각도의 사진으로 만났지만, 눈앞에 펼쳐진 독도는 전혀 다른 웅장함으로 우리를 맞는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흐른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독도 탐방대 모두의 가슴을 뛰게 만든다. 그 땅에는 우리를 반기는 우리가 있다. 휘날리는 태극기 아래 검게 그을린 독도 경비대의 환한 미소와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등대가 있다.

‘아! 여기가 대한민국의 동쪽 끝 소중한 우리 영토, 독도이구나.’

1. 머리에 독도를 담다

“선생님 오늘 독도 날씨는 어때요? 갈매기는 잘 있어요?”

2010년 10월 19일 화요일, 아침부터 우리는 독도와 만난다. 13살, 어느새 독도 전문가가 되어 버린 우리 반 아이들은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독도의 갈매기 소리는 아침 인사처럼 독도의 모습을 챙기고 있다.

‘독도는?’이라는 프로젝트 학습을 마친 뒤 벌써 이 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독다. 아이들은 이번 독도 프로젝트 학습을 하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준비하고, 탐구하고, 밤을 새면서도 늘 싱글벙글이었다.

“선생님, 대체 우리 애가 공부한다고 잠도 안 자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구호만을 외쳐서는 안 된다고 같이 준비하자고 했을 뿐이다. 이 세상 누가 물어도 왜 독도가 대한민국의 독도인지를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

을 뿐이다. 비록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에 나오지 않아도 무엇이 우리를 밤새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뛰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것을 거짓없는 노력으로 보여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열심히 머리에 독도를 담았다. 그리고 꿈을 세웠다. 선생님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건 아무도 우리의 것을 다시는 탐내거나 왜곡할 수 없게 하겠다고.

2. 마음으로 독도를 품다

2011년 8월 23일. 드디어 그 땅에 발을 내딛었다. 어제의 너도, 오늘의 나도, 내일의 우리도 그 모습에 가슴 벅차리라. 우리 독도 탐방대 모두는 잠시 동안 말을 잊었다. 저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움이 다시 눈물이 되어 가슴으로 흐른다.

저만치에는 독도 탐방 첫날 발목을 빼어 찢쪽거리면서도 어제 독도 박물관으로 가는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고, 곳곳이 안용복 동상에 묵념을 하고는 밤새 아파하면서도 독도에는 꼭 가야 한다던 중 3 수영이가 독도의 품 안에서 강충강충 뛰어다닌다. 밤늦도록 스마트폰으로 독도 날씨를 검색하고, 독도에 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하던 아이들은 연신 독도의 모습을 찍어대면서 첫 만남의 감격을 만끽하고 있다.

내가 만난 독도에는 우리 나라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땀방울이 그 바위 언저리마다 새겨져 있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단 한 움큼의 바닷물조차도 차마 떠가지 못하는 15살 한별이의 소중한 마음이 파도에 실려 독도 구석구석에 부딪친다. 슬며시 내 옆에 와 귓속말로 웬지 독도 갈매기는 다르게 보인다는, 풀 한 포기도 귀하게 보인다는 무뚝뚝하던 고3 성엽이의 마음이 있었다. 이런 소중한 마음들을, 우리 아닌 누가 가질 수 있리라.

20여 분. 너무나 짧은 만남의 시간,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하지만, 독도 탐방대는 우리의 간절함과 독도에 접안하지 못한 많은 이들의 아쉬움, 독도리 이장 김성도 할아버지의 굳건한 미소와 독도 경비대의 능률함, 항로 표지원의 묵묵함을 모두 담아 독도 저 깊은 수면 아래에 결의에 찬 목소리와 함께 묻었다. 자꾸만 메아리치고 솟구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거기에 두고 왔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무조건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내 말이 어찌면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서로의 눈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도,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여기가 내 나라 우리 영토임이.

3. 골목골목 독도를 새기다

“여러분, 방학 때 어떻게 지냈어요? 선생님은 독도에 갔다왔어요.”

8살, 1학년 아이들은 개학하는 날 선생님이 들려주는 독도 탐방기를 옛날 이야기보다 더 진지하게 한껏 집중해서 듣는다. 그리고는 오늘 들은 독도 이야기의 99%를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씩 뿌려놓고 간다. 독도에 가고 싶다는 눈망울을 하늘에 새기고 바람결에 떠나 보낸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집안 가득 전한다.

“엄마, 우리 선생님이 독도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은 주약골 여기저기 골목골목에, 아파트 구석구석에 우리의 섬 독도를 새기고 있다. 더 많이 담고 채워서 새기도록 오늘도 나는 독도 이야기를 한다.

동해에 울려 퍼진 독도사랑 골든벨!



안 창 욱
진주 대야고등학교 교사

1. 아! 독도

2011년 8월 23일 오후 5시 무렵 경남도교육청 독도사랑 체험활동 독도탐방대가 탄 배의 창문 너머로 독도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학생의 소감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독도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였다고’ 동해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독도는 눈부시게 아름답고 늠름하였습니다. 모두의 가슴이 벅차올랐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 이 느낌이 나라사랑이 아닐까? 분명 독도는 의연하게 우리 땅 동쪽 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 설레는 마음으로 그 첫발을 내딛다

우리 땅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고 영토의식을 함양할 목적으로 출범한 독도 탐방대가 8월 19일 발대식을 거쳐 드디어 8월 22일 아침 6시 새벽의 여명을 뚫고 독도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의 뜻과 각오를 아는지 가장 우려했던 날씨가 다행히 너무나 좋아서 큰 어려움 없이 첫 목적지 울릉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암괴석이 즐비한 해안 일주도로, 굽이굽이 급경사의 도로를 달려 도착한 나리분지, 유람선 위에서 바라본 코끼리바위, 송곳바위, 관음도, 죽도, 바다 위를 나는 갈매기 떼, 구름에 가린 성인봉 등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에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23일 오후 2시 30분, 우리는 오션플라워 호에 승선하여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4km, 꿈에 그리던 독도를 향했습니다. 1년 중 50여 일 정도만 입도(入島)를 허락한다는 독도에 내려

교육감님의 독도 선언문 낭독, 학생들이 정성껏 작성한 독도사랑 소망카드를 경비대에 전달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다함께 만세 삼창을 힘껏 외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 독도사랑 골든벨

독도를 다녀온 그날 저녁 7시, 모두 숙소의 야외 공연장에 모였습니다. 앰프와 조명이 켜지고 다함께 ‘독도사랑 골든벨’, ‘독도는 우리 땅(Dokdo is Korean territory)’이라 외치면서 골든벨의 막이 올랐습니다. 독도사랑 체험활동 워크북과 독도이야기 유인물 그리고 인터넷 및 독도 관련 사이트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출제된 총 30문제(4지 선다형, 주관식 단답형, OX문제 포함)를 가지고 30명(초등학생 5명, 중학생 7명, 고등학생 18명)의 참가학생들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초·중·고 각각 1등과 최종 골든벨 우승자 1명에게 시상할 푸짐한 상품도 준비하였습니다. 첫 문제는 ‘①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무시해버린다. ②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국내·외에 이를 알리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한다.’ 중 독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바른 것을 물었는데 모두 정답 ②번을 적은 후 힘차게 보드를 흔들었습니다. 문항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태도는 진지해졌고 문제도 곧잘 풀었습니다. 특히 ‘6.25 이후 혼란기에 독도를 지킨 독도의용수비대장은 누구입니까?’ 라는 고영진교육감님이 직접 읽은 문제에 이르러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탈락자들에게 희생의 기회도 주었지만 결국 남·여 두 학생이 남아 최종 우승자를 결정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한 사실을 보고하여 알린 당시 울릉군수는 누구입니까?’ 라는 문제를 두 학생이 모두 놓치자 ‘친구야 도와줘’ 라는 찬스를 활용한 끝에 양산남부고 손영지 학생이 정답인 심흥택을 맞추어 영예의 1등을 차지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자칫 지루하고 산만해지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기대 이상의 관심과 호응으로 독도 관련 지식을 많이 습득함은 물론 독도사랑의 마음을 드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독도가 자기의 영토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은 치밀하고 집요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들에게 과거의 불행했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만행입니다. 최근 초·중·고 교과서 왜곡은 자라나는 일본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영토

인식을 심어주려는 저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독도에 관한 정확한 역사적, 지리적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엄연한 우리 영토임을 확고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겠습니다.



4. 아쉬움을 남기고

떨어져가는 울릉도와 독도를 바라보며 비록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가슴에 담고 우리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렸습니다.

20세기 이전까지도 우리의 고문헌, 고지도상에 엄연히 우리 영토로 명기되어 왔던 독도. 심지어 일본의 고문헌이나 최고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에서조차 우리 땅으로 기록된 독도. 우리 선조들이 천여 년 동안 굳게 지켜온 독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선조들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은 물론 후손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독도는 우리 동해바다를 곳곳이 지킬 것입니다. 말없이 우리를 지켜 보면서……



독도 사랑 체험활동을 마치고 - 학생 체험 수기 모음 -



황영란
사천 문선초등학교 수석교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초·중등 학생 30명과 교육감, 교육위원, 언론인들과 담당관계자 30명과 함께 우리 땅 독도 수호 의지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방안', '영토 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장을 제공하기 위해 독도사랑체험활동을 가졌다.

8월 19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독도 탐방대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 22일 울릉도 육로 및 해양과학 탐방, 독도 '소망카드' 쓰기 8월 23일 안용복 장군 충혼비 참배, 독도 기념관 학습 그리고 독도 탐방, 돌아와서는 저녁 '독도 골든벨', 8월 24일 독도 체험 발표회, 내수전 전망대까지 2박 3일을 쉼 없이 달려왔다.

그동안 학생들이 느낀 독도에 대한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보니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만난 독도에 대한 생각들을 가장 만형인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독도!, 배가 마음대로 접안할 수도 없는 어찌보면 오지인 이곳에서 삶으로 독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독도경비대원들을 보니, 배부르고 등 따뜻한 곳에서 입으로만 독도사랑을 이야기한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우리 일행은 그 분들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담아 전날 정성스럽게 작성한 '독도소망카드'를 독도경비대장님께 전달했다. 이어서 고영진 교육감님의 독도교육선언문 낭독이 이어졌고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나라사랑! 독도사랑!"을 외쳤다. 독도에서 울려 퍼진 하나 된 60개의 목소리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거창대성고 정우식)

독도 사랑 체험활동은 교실을 벗어나 독도에 대한 사랑을 생각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지리 교과서에서 배운 해양성기후는 촉각으로, 나리분지와 성인봉 그리고 우데기는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독도 체험활동을 통해 지리적으로만 알

고 있던 독도를 역사적, 정치적, 생태학적으로 배운 것을 학우들에게 독도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나의 꿈인 지리교사가 되어서 한반도의 영역 단원을 가르칠 때는 꼭 이번 독도체험을 언급하면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독도상식을 심어주기로 마음먹었다.

(대아고 홍영균)

독도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듯 했다. TV에서만 보던 독도가 바로 내 눈 앞에 펼쳐져 있었다. 독도 사랑 체험단 60명 모두 '한마음으로 독도 교육에 힘쓰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경남독도교육선언'을 할 때는 감동이였다. 마지막 구호인 "Dockdo is korea's territory(독도는 우리땅!!)"를 얼마나 가슴 벅차게 외쳤는지...(용남고 이준경)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나는 독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배운 일본과 영토분쟁에 놓여있다는 것과 화산으로 생겨난 섬이라는 것 뿐. 그러나 울릉도에 들어와서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접하면서 독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독도 탐방활동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독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값진 시간들이었고 우리 영토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해 주었다.

(고성고 한건희)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하였고, 독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 밀려 왔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독도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 독도의 시간은 너무나 빨랐다. 아쉬운 마음에 사진기 셔츠만 자꾸 누르다 배에 올랐다. 아쉬운 마음에 창밖을 보니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경비대원들이 일렬로 서서 배가 출발하고 한참이 지나도록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감동 그 자체였다. 독도 탐방을 마치고 다시 나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다. 한참의 고민 끝에 내가 내린 결정은 현재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동고 이선경)

바다 한가운데에 곳곳이 서 있는 독도를 보니 많은 풍파를 겪으며 곳곳이 강해진 우리 나라와도 비슷했다. 같이 갔던 친구들과 멋진 이 아름다운 독도를 꼭 지켜내자고 약속하고 다짐했다. 독도는 우리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다. 이번 독도체험활동은 나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생기게 해 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독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통영고 전재승)

독도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격스러웠다. 그 기분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번 체험활동으로 독도 출발 전 들른 독도 기념관이 울릉도 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같이 세계적인이 많이 찾는 우리나라 곳곳에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울릉도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만 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키는 데 박물관만큼 좋은 자료는 없을 것 같았다. (산청고 허다빈)

독도는 홀로 서 있어 외로운 섬이라는 생각보다 본토를 응시하고 있는 의로운 땅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어떤 역사관이나 의식이 필요치 않았으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존재하는 것만 봐도 가슴이 뭉클하였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망망한 넓은 바다 위에 의연히 서 있으면서 정치적인 논리나 세속적인 욕심에 상관도 없는 듯 당당하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우리 선조의 땅이었고, 우리 국민이 지키고 있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창녕제일고 최운호)

흥분되고 짜릿한 그 무언가가 나의 뇌까지 타고 올라갔다.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큰 바위섬 독도! 화면상에서 독도를 보면서 저렇게 조그마한 섬을 가지고 일본은 왜 저러나면서 막 역성을 냈다. 그런데 그 작은 바위섬이 실제 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우리 부모님 어깨 보다 더 넓고 우리 아빠의 등보다 더 넓었고 우리 아빠의 키보다 더 컸다. 더 이상 내 눈앞 독도는 작은 바위섬이 아니라 하나의 대지였다. 독도의 바위틈 사이에서 옆으로 걸어 다니는 게를 보아도 나에겐 독도를 지켜주는 지킴이 같았다. 독도 바위틈 사이에서 자라나는 초록의 풀까지도 나에게 산삼 같은 약초였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눈 감고 귀를 막고 상상하면 독도의 모든 것이 느껴진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느낄 수 있는 생명체 같기에 독도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부끄럽다. 내 몸으로 느끼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몸소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다. 매일 보던 컴퓨터, TV로 100번 아니 1000번을 본 독도와 내가 직접 체험한 독도는 나에게 엄청난 충격과 새로운 에너지를 전달해 주었다. 글로써 말로써 표현하지 못할 무언가가 아직도 나에겐 있다고 느낀다. 그 느낌을 직접 몸소 체험하길 바라며 독도에서 보낸 내 소망편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한다. (삼천포중앙여중 장채은)

울릉도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등대있는 곳으로 올라갔는데 정말 바다가 초록색이었다. 물이 얼마나 맑았으면 산꼭대기에서도 바다 밑바닥이 다보였다. 그리고 너와집을 갔는데 5학년 때 사회책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것을 직접 보니 우대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더욱더 잘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독도에 들어갔다. “독도, 독도! 파이팅” 하면서 구호를 외칠 때 나는 마음 속으로 우리의 땅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지켜 낼 것을 다짐하고 또 기도했다. 그리고 독도가 얼마나 소중한 섬인지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돌아와 개학식 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독도에 다녀온 소감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독도에서 인터뷰를 할 때 다 못한 독도의 소중함을 개학식에서 전교생에게 말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초동초 박종균)

이 글을 정리하면서 30명의 학생들의 모든 소감을 담지 못해 아쉬웠다. 2박 3일의 시간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시간이었는지 소감 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늦은 저녁 창원에 들어서면서 “지금 다시 독도로 갑시다.”라는 한 학생의 소리에 박수를 치던 학생들 모습에서 함께 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독도는 우리 땅! Dodo is Korean territory!

말하기에 자신감을 불어 넣는 창의 놀이



안 태 경
양산 범어초등학교 교사

I. 들어가며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적인 국어 능력 향상이다. 국어 능력이란 국어사용, 문법, 문학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이나 언어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어사용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은 생활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바르고 조리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앞으로의 언어생활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아이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놀이성을 자극하여 수업에 대한 흥미와 활동성을 높이고 활발한 언어적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상하여 적용해 본 창의 놀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II. 창의 놀이로 말하기 능력이 쑥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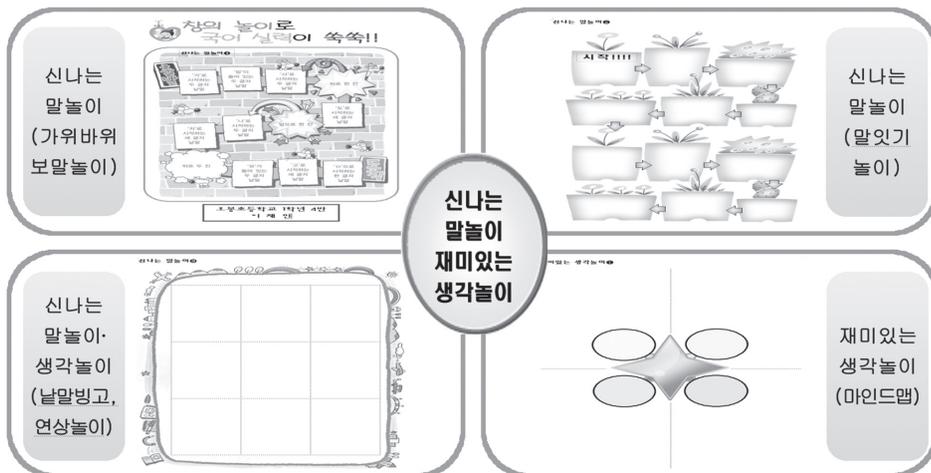
1. 창의 놀이란

아이들이 표현활동에 즐거움을 느끼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또한 표현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한 놀이 위주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창의 놀이는 언어표현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말놀이부터 생각놀이, 연극놀이, 몸짓놀이, 손놀이까지 총 5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체를 통해 언어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영역	몸짓놀이	손놀이	말놀이	생각놀이	연극놀이
프로 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를 만들어요 • 몸으로 말해요 • 누구일까요? • 나는 마네킹 • 거울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양 꾸미기 • 주인공 그리기 • 책 속 장면 꾸미기 • 주인공 만들기 • 칠교 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전하기 • 다섯 고개 • 이구동성 • 끝말잇기 • 말꼬리 따기 • 수수께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엇이 될까? • 연상놀이 • 마인드맵 • 낱말빙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극 • 인형극
실제 모습					
	글자를 만들어요	주인공 만들기	말 전하기	낱말빙고	역할놀이

2. 창의 놀이에 안성맞춤, ‘신나는 말놀이 재미있는 생각놀이’

아이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창의 놀이를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여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신나는 말놀이 재미있는 생각놀이’ 창의 놀이 자료다. 책자 형식의 4면으로 된 창의 놀이 자료는 코팅하여 모듈바구니에 담아두고 수업 시간에는 학습 자료로, 쉬는 시간에는 놀이 자료로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지고 놀도록 하였다.



가. 신나는 말놀이 1 : 가위바위보 말놀이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가위는 1칸, 바위는 2칸, 보는 3칸을 이동하며, 말판에 적혀 있는 조건에 알맞은 낱말을 말하는 놀이다.

나. 신나는 말놀이 2 : 말잇기 놀이

끝말잇기, ‘가’로 시작하는 말잇기 등 다양한 말잇기 놀이를 할 수 있다. 이 때 관련된 낱말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이 생각해 내도록 한다.

다. 신나는 말놀이 3 : 낱말빙고, 연상놀이

하나의 주제와 관련되는 낱말 또는 연상되는 낱말을 많이 적거나, 적은 낱말로 빙고 게임도 할 수 있다.

라. 재미있는 생각놀이 1 : 마인드맵

발표를 하기 전 또는 글을 쓰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III. 나가며

요즘 아이들은 입이 참 아물다고들 한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익숙하다는 말일 터이다. 하지만 수업 시간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발표를 시킬까봐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고 말꼬리를 흐리는 일이 허다하다.

창의 놀이는 이런 아이들에게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되돌려 주어 자신의 생각을 보다 당당하고 조리 있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몸짓놀이, 손놀이, 말놀이를 말문을 트고, 생각놀이를 말할 내용을 구조화하며, 연극놀이를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자연스러운 발화 경험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참으로 입이 아문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본다.



성공적인 수업 전략을 위한 TIP

‘작은 아이디어가 창의성 교육에 밑거름이 된다’



엄 성 옥

마산중앙중학교 수석교사

I. 들어가며

우리는 지금, 미래사회변화 예측과 더불어 고령화 사회의 진입, 진로탐색과 선택, 정보생산의 대량화, 소집단 또는 개인의 역량강화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의 새로운 질서와 방향에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필요성에 적지 않은 무게와 긴장감으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변화에 대한 준비와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지금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의 교육은 이제 단편적인 지식 전달의 수업을 탈피하여 지식, 생산, 소비라는 역사의 큰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진보되고 계획된 수업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중심교육에서 창의와 인성을 바탕으로 융합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서 그 의미와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다함께 고민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I. 펼치며

1. 수업 변화의 핵심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수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수업주제에 맞는 학습 전략과 자료의 선택이다. 수업현장에서 수업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소재의 발굴을 통해 수업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학생활동과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업 요소 중 하나이다.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학습 자료(작은 아이디어)의 제시는 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은 물론 차시수업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려지는 수업분위기가 창출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가치와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실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 분류하고 재창출하여 수업에 접목시켜 나가려는 실천 의지에 무게가 실려야 한다.

종이 한 장, PET병 한 개, 신문지 한 장, 볼펜 한 자루에서도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가치를 이끌어내려는 관심에서부터 ‘작은 아이디어’는 창출되며 이는 성공적인 수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게 된다.

2. 수업에는 ‘살아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교과별 단원의 구성은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창의성 교육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 일부에선 그 한계점을 지적하곤 한다.

지식도 이제 재활용이 필요할 때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의 수업을 통해 쌓여지는 지식과 경험들이 새롭게 재활용될 수 있는 기회와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열어 주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일깨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수업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3. 학생들이 ‘웃음 꽃’으로 피게 한다

웃음은 지루함을 쫓아내는 첩약이며, 교사와 학생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말’, ‘자신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발한 표정이나 말을 할 때’, ‘예상과 다른 색다른 이미지가 연상될 때’ 등 수업시간에 웃음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독특한 기법과 방법의 연습과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가.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라

선생님, 학교생활, TV드라마나 연예인, 학생들과 관련된 내용을 탐색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연예인과 관련된 이야기는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적절히 패러디 한다면 효과 만점이다.

나. 학생들에게 개방적 발문을 하라

이른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OO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등과 같은 발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예상치 않은 대답을 유도하여 한바탕 폭소를 자아 낼 수 있다.

다. 교사 자신의 실수담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라

‘선생님에게도 저런 면이...’ 하면서 선생님도 웃고, 학생도 웃는다. 때로 남의 실수담을 내 것처럼 패러디할 수도 있다. 특히 학생시절의 실수담, 가정에서의 실수담은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면이 많다. 단, 의도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을 곁들인다면 금상첨화다.

라. 교과내용과 관련하여 그 이면에 감춰진 일화를 발굴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수업분위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 사실들의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 인물들의 일화, 외국의 기이한 풍물, 상식과 관련된 웃음 등은 어느 수업시간이든지 가능하다. 수업 내용과 관련된 기이한 이야기는 신문, 잡지, 유머게시판 등을 읽을 때 그때그때 메모 또는 스크랩해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 다양한 제스처와 표정 등을 사용하여 이야기하라

때로 남의 목소리나 제스처 흉내, 약간의 과도한 몸동작 등은 학생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인상을 좋게 만든다. 요즘 학생들은 ‘지적인 개그맨’ 같은 교사를 더욱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에겐 웃음과 여유, 그리고 인간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 인상 쓰고,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격하면 학생들이 수업 전부터 기가 질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여도 분위기가 썰렁할 뿐이다. 교사의 실력과 인간미를 학생들이 느낄 때, 하찮은 이야기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학생들은 자지러지게 웃는다. 수업시간 학생들을 칭찬하고, 밝은 표정으로 수업하는 것은 학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기본이며 시작이 되어야 한다.

4. 융합교육에 눈을 돌리자

이제는 융합의 시대다. 네트워크의 발전과 활성화 그리고 정보 생산의 대량화에 따른 접근성이 확장되고, 정보수집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내용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과거 전문교과, 교과중심의 교육에서 가질 수 있는 전문성보다는 지식을 서로 결합시켜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정 교과의 지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들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특히, 수업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교과 지식의 전달과 습득, 학생 학습수행을 기본으로 한층 더 복합적이고 파생적인 다양한 사고의 연결성과 결합을 통한 창조적 지식의 생산을 학생들로 하여금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업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교과 내용의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종교 등의 모든 영역에서의 재분석이 교과 수업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은 미술 시간에, 수학은 수학시간에, 과학은 과학시간에 배운다’라는 개념을 탈피해야 한다. 예들 들어 ‘우리 지방에서 찾을 수 있는 조형물’이라는 수업 주제에 따른 수업의 진행을 위해 찾을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조형물의 재료, 디자인, 역학적 구조, 크기에 대한 비율, 기술적 측면, 문화와 삶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과 요소들을 서로 연관시켜 적용함으로써 수업의 축을 새롭게 해야 한다.

Ⅲ. 맺으며

두 갈래의 길,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선택을 위해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세상의 혼란과 무질서를 가로지르면서 거침없이 굴러가는 시대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그 어떤 힘으로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 위기를 거치면서 그 동안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또한 우리 일상의 한가운데서 격렬한 파열음을 내면서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과거 당연한 것으로 통용되어 왔던 가치관이나 규칙 가운데 많은 부분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생각과 질서가 떠오르는 중이다.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개별 주체들 상호 간의 작용과 반작용의 패러다임도 재편되고, 방정식도 다시 쓰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이 부딪치고 헤쳐 나갈 장벽이 높기만 하다. 수업의 방법과 방식도 이제 변해야 한다. 그들이 곧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창의·인성 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때이다.

날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라면

-장애학생을 위한 행복한 수업기술-



이복희

경남은광학교 교사

우리학교 교정은 다른 곳보다 서둘러 계절이 오는 듯하다. 학교가 품고 있는 학생들의 변화 속도에 비하면 가히 메가톤급이다. 학교를 둘러싼 나무며 풀, 본관 건물이 이고 있는 하늘조차 여는 곳과 다르게 이미 가을빛이 완연하다. 우리 장애학생들의 변화도 그 계절을 닮아 준다면…….

교직생활 20여년을 지나면서 남은 20년을 생각하게 되고, 더불어 가르치고 배우며 지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된다. 모 방송국의 인기 프로그램인 생활의 달인에서는 한 가지 일을 적게는 5년, 많게는 10여 년 종사하게 되면 그 일에 달인이 되고 눈을 감고 혹은 뒤돌아서도 척척 해내는 신기를 부리던데…… 우리네 일,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해마다 새롭다. 게다가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학기마다, 달마다 조금 과장하자면 날마다 새롭다.

하기야 늘 처음인 듯 새로워서 20년이 2년인 듯 후딱 지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새로움은 질리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기도 하지만,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불안함과 전문가적 소양이 부족하다는 자괴감을 만드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한 가지 일이라고는 해도 해마다 만나는 학생이 다르고, 작년에 만났던 그 아이가 올해 다른 성향의 아이로 변해 있기도 하고, 교육부의 정책이 바뀌기도 하니 우영을 10년씩 까는 일 하고는 사뭇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아무리 학생이 바뀌고,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사람을 가르친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을 가르치는 기본방법은 매뉴얼을 만들어 불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학생의 수준, 학교의 환경, 교과내용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해도 기본 틀은 만들어 불만하다. 그것을 후자에게 전수하고 발전시키면 좀 더 수월하고 실패가 적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장애교육 20년의 교실수업을 교사활동 위주로 정리해 본다. 참고로 지극히 개인적 견해를 밝혀두고 싶다.

수업 과정	교사 활동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반드시 짚어준다. ⊙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학생생활 주변 위주로 동기유발 자료로 제시한다. ⊙ 가정, 학교, 등하교 길에서 흔히 겪거나 볼 수 있는 물건, 상황에서 모티브를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학습안내, 학습목표는 다소 강하게 인지시켜준다. ⊙ 교사의 어조는 강, 약을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연극 톤, 동화 톤을 사용해 좋을 듯하다. ⊙ 강화물은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사전에 제시할 것과, 정리 시 제시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확인 또 확인! * ppt를 활용한 동기유발 자료일 필요는 없다 * 수업진행 중에도 학습목표는 반복 상기시킬 것!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의 순서를 충분히 고려하고 진행해야 한다. ⊙ 하나의 활동과 다음 활동 사이에는 왜 그런 활동이 필요했고,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하다. ⊙ 교사의 입과 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학생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 학생간의 학습수준, 속도에 차이가 많은 편이므로 수준(속도)차이는 또래학습, 과제의 양, 반복학습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 다소 과장되어 보이더라도 교사의 리액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단편적인 “잘했어, 착하다, 옳지, 그렇지, 훌륭하네” 칭찬을 보다 확장해서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가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전개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활동순서는 유기적인가? - 효과적 칭찬인가? - 학생활동위주로 이루어지는가? - 개별화는 잘 계획되었는가? - 적절한 과제의 질과 양인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차시에 끝내지 못한 수업이라도 마무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 오늘 배운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배우면 무엇을 알게 되고 확장해서 다음에는 무엇을 할(알)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정리활동이 필요하다. ⊙ 자료의 정리, 학습의 정리, 칭찬활동을 한다. ⊙ 차시 예고는 과제부여를 함으로써 다음 시간에 대한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 수업과정 중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겠으나 정리단계에서도 수학, 국어, 사회과와의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과적인 평가, 정리활동이 필요하다. - 계량화된 수로써 확인 - 느낌을 함께 나누면서 확인

단, 주의할 점은 교사의 기분상태가 수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늘 심신의 건강에 힘쓸 일이다.

차

세대 나이스의 효율적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남교육



정 은 영

양산 화제초등학교 교사

활용

복무 관련 업무 활용 팁

NEIS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시스템들이 하나의 업무포털로 통합시스템화 된 것이 어느덧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와 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많이 안정화 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예전의 분산된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업무 효율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뉴로서 복무와 관련해서 자주 문의해 오시는 질문들에 대해 질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결재 상신중인 복무건을 취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결재가 완료되기 전이라면 결재자(교감, 교장선생님)에게 반려를 요청하거나, 상신함에서 본인이 직접 회수하시면 됩니다. 회수는 회수시엔 승인함의 신규기능으로 근무상황, 출장, 초과근무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Q. 결재 완결된 복무건을 취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결재가 완료된 이후라면 상신함에서 기결취소하시면 됩니다.

상신함에서 결재문서를 클릭하여 결재 문서 상세 조회 팝업을 띄웁니다. 결재가 완료된 문서에는 왼쪽 위쪽에 기결문서취소 버튼이 보이며 기결문서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재가 완료 되면 복무 메뉴에서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Q. 근무상황이 개인적인 사유라 공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근무상황 신청시에 기간과 행선지 입력칸 옆의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일일근무상황에 기간 및 행선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① 근무상황 및 출장 신청 시 기간, 행선지 뒤의 체크 박스를 체크한 후 근무상황을 신청합니다.

② 기간 및 행선지에 체크가 되어 승인 완료된 복무의 경우, 일일 근무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공란으로 조회됩니다.

Q. 승인 신청할 때 매번 결재자를 선택해 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결재라인을 손쉽게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자주 사용하는 결재선은 개인결재선등록을 이용하여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① 상신함의 개인결재선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개인결재선 등록 팝업창에서 『결재선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결재선에 『기본 결재라인』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결재자를 더블클릭 지정 후 『결재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 결재선 등록

사용자명 조회 결재 협조 공람 닫기

사용자명	사용자ID	소속	직위	구분
박두인	pdi001	화제 초등학교	교장(초등)	
임의순	ims002	화제 초등학교	교감(초등)	
강향대	kcd3271	화제 초등학교	교사(초등)	
김만성	mickim99	화제 초등학교	교사(초등)	
김유진	indream05	화제 초등학교	교사(초등)	
류근현	nikegogo3	화제 초등학교	교사(초등)	

내 결재선 선택

승인자삭제 결재선삭제 결재선저장 결재선신규등록

결재선 기본결재라인

순번	구분	결재자명	결재자ID	부서명	직위
1	결재	임의순	ims002	화제 초등학교	교감(초등)
2	결재	박두인	pdi001	화제 초등학교	교장(초등)

- ③ 복무 신청시에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기안문서 상신 화면에서 『개인 결재선』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 만들어놓은 개인 결재선이 조회되며 해당 결재선을 선택 하여 지정하면 결재자가 간편하게 적용됩니다.

기안문서상신

기안문서상신

학교급 문서종류선택 근무상황신청

제목 근무상황신청[근무지내 출장]기간:20110923 09:00 ~ 20110923 17:00 장소:양산교육지원청

결재자 개인결재선 결재자지정

선택	결재순번	구분	성명	직위	소속
<input type="checkbox"/>	1	0	기안	정운영	교사(초등) 화제 초등학교

결재경로

결재
 협조
 공람

※정정대장(재학생, 졸업생)의 경우 반드시 4단결재(기안자, 담당부장, 교감, 교장)로 결재경로를 지정하셔야하며 같은 직위의 결재자는 병렬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안문 상신이 아됩니다.

◆ 개인 결재선 활용 ◆

개인 결재선에 이외에도 종종 사용하게 되는 『관외출장』, 『시간외 근무』, 『교감 전결』등을 결재선 메뉴로 등록하고 각각 결재라인을 등록해서 사용하면 매번 결재자 지정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우수학교 블루리본 스쿨에서 배우다

구 현 숙

창원 대원초등학교 교사

1. 지금 우리 교육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서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아이들, 공교육보다 사교육 중심인 대한민국, 분명 공교육 위기이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의 학부모들은 가정이 해체되는 한이 있어도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싶어 하고 최고의 교육 기회를 찾고자 유학생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는 미국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군사,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의 중심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에 미국 공교육이 처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공하고 있는 미국 공립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고, 미국의 학교교육을 살펴보는 것은 미국식 학교교육 제도를 표방하고 여러 면에서 미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공립학교의 성공 사례를 통해 우리 교육의 개선 및 발전에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블루리본 스쿨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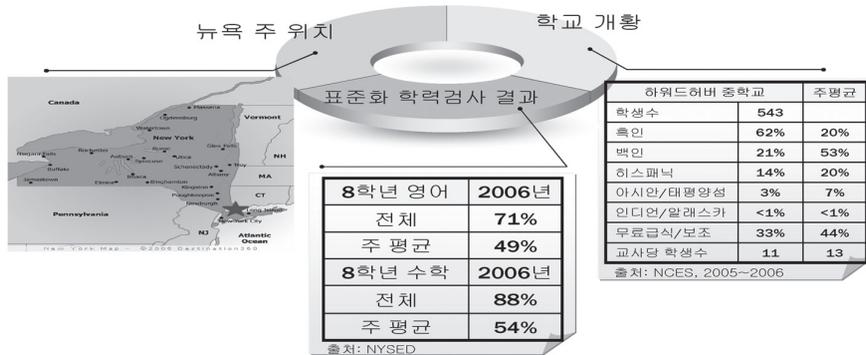
블루리본 스쿨은 미국 정부가 낙제학생방지 및 모든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1982년에 고안된 우수학교 표창제도로 미국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처음에는 중학교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초등학교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교육구와 학교의 책무성 기준을 높여 학업성취 향상 및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 블루리본 학교로 선정되면 교장과 교사 및 학생대표가 백악관에 초청받아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다고 한다.

블루리본 우수 학교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우수 학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학교는

개교한지 5년이 지나야 한다. 또 선정 후 최소 5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선정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자체평가를 하는데 이 과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대표들이 SWOT(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분석을 통해 학교의 장단점과 미래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학교 개선에 관한 정보가 게재된 지원신청서를 평가위원회들에게 제출하면 해당학교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자들을 파견하여 관찰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고 한다. 평가위원은 전도유망한 학교를 미국연방정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이 블루리본 학교를 선정 발표한다고 한다. 이러한 블루리본 학교는 소외계층 출신 재학생의 40% 이상이 주 표준시험에서 높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보여야 하며,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공립학교는 주 표준시험에서, 사립학교는 전국 평가시험에서 상위 10% 이내에 속하는 우수학교이다.

3. 구체적 사례

가. 하워드허버 중학교



아이들이 미래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자

• 자기반성
수업 관찰 -> 분석
-> '모두가 코치다' -> 최고의 교사

• 치밀하게 구성된 수업 계획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
AP 수업 선택

• 평가와 자료
뉴욕 주 표준 교육과정
지속적인 시험
교육과정, 교수방법의 수정보완

우리는 한 팀

• '언제라도' 할말이 있으면
교장과 교감에게

• 새로운 행정가 지도력
교육구 관내 모든 사람들
한 영어리로 뛰는 작업

• 감정 찾아내기
교수전학과 교수자료 공유
학교의 완벽한 지원

모든 학생의 성공

• No more kids
who could not 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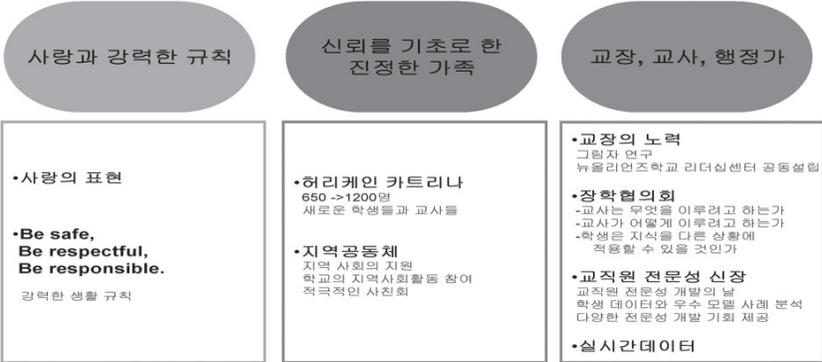
독서 프로그램
개별 또는 소집단 지도
학생의 자기 평가
주간 보고 제도

•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

지역 학교/ 토요학교/ 스포츠클럽
위기의 학생 개인지도
수업지원팀

• 학생의 의견 경청하기

나. 벨샤제 초등학교



4. 성공적인 요인 분석

가. 리더십

새로운 교장과 교감, 과장, 특수 교육 과장 선출로 새로운 교육의 장을 위한 변화의 시도이다. 그리고 최소한 연 1회 이상 교장의 수업관찰이 이루어지며, 연 2회 이상 부장교사의 수업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장은 결근교사의 수업지도와 정기적으로 방과후 학생들과 함께 45분씩 대화를 실시하고 있고 수업지원 팀들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나. 소속감-유대감 강화

교장은 감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독서 프로그램 개발, 저녁학교, 학생들의 의견 경청에 적극적이다. 학부모는 7마일 걷기 운동, 교사와의 소프트볼 게임, 학부모 아카데미, 청소년 부모 교육, 컴퓨터 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유지와 학교장과의 조찬 대화와 정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 설문지를 통하여 그 유대감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다. 지속적인 평가와 자료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학과장은 모든 수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뉴욕 주 표준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 과정 진도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시험에 대한 정보를 의뢰하여 분석하게 하는 등 분석기관과 소통하고 있다.

5. 우리 교육에서

블루리본 우수 학교들은 학생이 중심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름만 대면 누구인지 모두 알고 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성공적인 학교, 좋은 학교에 선정된 블루리본 학교들에서 우리 교육에의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교육사회와의 연관성이다. 교장 공모제의 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정도의 여하를 떠나서 교장의 지도성이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교장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자유스런 환경을 조성하며, 지도자로서 연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의 지향점이다. 배려성과 구조주의에서 낮은 구조주의와 낮은 배려성보다 높은 구조주의와 높은 배려성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교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신뢰와 협력의 중요성이다. 우리 교육도 이러한 학교가 성공했던 것처럼 교장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생 하나를 키우기 위해 전체가 움직이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전체가 일관성 있는 생활 지도방법을 공유하고, 학생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며, 교사는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는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Wee 클래스로 찾아가는 희망 학교



안 수 진

김해삼문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2004년 개교 이후 ‘꼴찌학교’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던 김해삼문고등학교에 작은 희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 81~99%의 바닥권을 자랑하던 학생들이 카이스트, 부산대, 세종대, 성균관대에 입학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김해삼문고등학교의 어떤 부분이 이런 기적을 일어나게 할까요? 그건 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교과교실제,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최신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은 바로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생활지도와 상담입니다.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안정시키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었고, 이러한 노력이 작지만 큰 기적들을 생기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에는 바로 Wee 클래스가 있습니다.

1. 열려있는 상담실

본교 Wee 클래스의 애칭은 ‘삼문고 약수터’입니다. 쉬는 시간이면 항상 학생들이 찾아와 복적대며, 누구나 쉽게 찾아와 쉬어가는 공간이라고 지난해 졸업생들이 지어준 별칭입니다. 열린 상담실을 모토로 운영되는 본교 Wee 클래스는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진행된 교육부 지정 ‘상담망 연구학교’의 맥을 이어 지난 2008년 구축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점심시간에는 또래도우미들과 함께 상담실을 놀이공간으로 운영하면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고, 진로관련 서적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점심식사를 하자마자 달려오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는 학생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 Wee 클래스 진로상담 페스티벌

5월이 되면 김해삼문고등학교에는 상담 축제가 열립니다. 직업인들을 초청해 생생한 현장의 경험을 들어보는 ‘직업인의 날’을 비롯해, 심리검사에 대해서 전문

01



02



01, 02

Wee 클래스 진로상담 페스티벌 활동모습

가가 직접 결과를 설명해주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김해삼문고등학교의 자랑거리는 바로 ‘Wee 클래스 진로상담 페스티벌’입니다.

본교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겨야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누구나 쉽게 상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Wee 클래스 진로 상담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ee 클래스 진로상담 페스티벌은 정신건강을 비롯하여 성격, 성, 진로, 건강 등 다양한 분야를 학생들이 부스별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상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Wee 센터를 비롯하여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김해시 정신보건센터, 김해 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시 가정폭력상담소, 김해시 보건소, 한국가이던스 부산지사 등의 전문 기관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상담으로 연계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3.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

김해삼문고등학교 Wee 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 쉬지 않고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학업 성적은 물론 가정환경까지 하위권인 학생이 많은 학교의 특성상 우울이나 불안이 높은 학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교사가 항상 상주하면서 개인상담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의 특성에 맞춰 생명존중,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진로탐색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본교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전문상담교사 이외에도 영화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상담의 영역을 넘어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밖에도

이밖에도 김해삼문고등학교의 Wee 클래스는 단순한 상담실을 벗어나 학교 내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창의경영학교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등 상담에 대한 자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마다 상담실을 운영하는 또래도우미 교육을 비롯하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토요일에는 영화치료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03



04



03 원예치료 집단상담 활동모습

04 미술치료 집단상담 활동모습

5. 앞으로의 비전

현재 본교 Wee 클래스에는 4그룹의 맞춤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약물중독 및 흡연 예방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 예방 프로그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으로 학교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운영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학교 내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되는 공간이 바로 Wee 클래스입니다. 보다 낮은 문턱으로 학생들이 찾아오고,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며 학부모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로를 지향하는 김해삼문고등학교의 Wee 클래스의 성장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 실현의 도약대 창원신월고



전 외 열
창원신월고등학교 교장

1. 학생의 꿈 실현을 위한 중장기 학교 발전계획 수립

2003년 개교 이래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학교의 기틀을 잡아 지역의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본교는 학교의 모든 역량을 ‘학생의 꿈을 실현’ 하는 데 두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학생·학부모·교사가 합심하여 진로탐색을 비롯한 학력향상 및 인성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 창원신월고 중장기 발전계획 □

2010년 (개교 8주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계획, 각종 규정, 중장기 발전계획 점검 ● 학교교육 프로그램 평가 ● 업무부서 개편 ● 학생 행동지침 제정 ● 진로컨설팅 구성(진로홍보부 신설) ● 창의경영학교 선정 준비 ● 공모교장제 실시 	신월고 정비기
2011년 (개교 9주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꿈 실현 계획 수립 ● 인성함양 4-DO 운동 전개 ●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개선 ● 진로홍보부 운영(입학사정관제 대비) ● 창의경영학교 운영 ● 지역교육공동체와 협약 추진 	신월고 실천기
2012년 (개교 10주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꿈 실현 방안 추진 ● 신월학생 4-DO 운동 생활화 ● 수준별 수업 정착 ● 진로홍보부 정착 ● 입학사정관제 지도 정착 ● 개교 10주년 학교공동체 한마당 축제 개최 	신월고 강화기
2013년 (개교 11주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월교육백서 발간 ● 학생의 꿈을 실현하는 진로 선택신월고 정착기 	신월고 정착기

2. 꿈을 갖기 위한 진로탐색 활동

2011학년도에 진로교육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전국에서 최초로 ‘커리어존’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할 수 있고, 성공한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매월 1회「학부모 학교방문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홍보와 함께 대학입학제도 설명, 담임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학생을 이해하고 진로선택에 함께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3. 소외 학생 없는 맞춤형 학습 전략

가. 학생 선택형 야간 심화강좌

9월 현재 3회차 야간 심화강좌 실시 중으로 평균 27개 강좌를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강좌당 10명 이내의 소인수로 편성하여 맞춤형 개별 심화 지도를 실시하여 학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나. 독서논술교육 실시

1·2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논술 교실’, ‘논술 기본 강좌’를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논술 기초 및 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3학년은 ‘통합 논술 강좌’를 통하여 논술 실전 훈련을 쌓고 있다.

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야간 심화강좌나 일률적인 방과후 학습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1:1 사제 멘토링’, ‘선후배 교감 멘토링’, ‘1:1 친구 멘토링’, ‘사회통합 교육멘토링’ 등 다양한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0년 경남대학교사범대학과 멘토링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생 5명이 멘토로 참여하여 매주 2회 교과 부진 학생의 학습을 돕는 ‘대학생 멘토링’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의 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4. 스펙은 교내에서 쌓는다.

가. 「ASEAN+3과학영재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이공계 학생의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본교 교사가 공동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01



02



03



01 전국 최초로 설치한 진로지도의 산실 ‘커리어존’ 완공식

02 교내논술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하고 있다.

03 사제간 신뢰를 바탕으로 1:1 기초 학력 사제멘토링 결연식

나. 계발활동 23개 부서와 27개의 자생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여 자신의 소질과 특기를 신장시킬 뿐아니라 이른바 스펙을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수학·영어 경시대회, 독서·논술 경시대회, 과학 논술·실험·퀴즈대회, 지리올림피아드 등의 각종 교내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학생은 표창을 하여 격려하고 수상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참가증을 발급하여 의욕을 고취하였으며, 특히 반별 합창대회, 반별 축구대회 등을 연중 실시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전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의 특색사업 실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라. 봉사활동

학교환경지킴이, 절전도우미, 특수학생도우미, 쓰레기분리수거도우미, 음수대 청결도우미, 급식도우미 등등의 각종 도우미 활동에 많은 학생이 앞다투어 참여하여 다른 학생에게 과급되어 깨끗한 학교, 서로 돕는 학교, 위생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5. 명품 학교, 명품 교육의 초석, 「창원신월고 4-DO 운동」

학교에서 ‘진로 탐색’, ‘학력 향상 방안’, ‘대학진학용 스펙 쌓기’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의지와 태도일 것이다. ‘창원신월고 4-DO 운동’은 ① 두발·복장 단정히 하기 ② 등교시간·수업시간 지키기 ③ 수업시간 바른자세 갖기 ④ 금연하기의 가장 기본적인 학교생활습관으로 명품 학교, 명품 교육을 달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전교생이 만지고 보고 느끼는 체험학습 정말 신나요!

-자매결연을 통한 홈스테이, 현장체험학습 기회 제공-



서 미 옥
산청 삼장초등학교 교장

◆ S&T 중공업과의 산학교류

“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S&T 중공업과 산학교류는 지리산 골짜기의 우리 어린이들이 대도시를 체험하고 직접 야구 경기를 응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고사리 손으로 직접 만든 응원 도구로 목이 터져라 롯데지언츠를 응원하던 우리 학교의 1학년 개구쟁이들은 선생님들의 우려와는 달리 너무나 신나는 얼굴이었다.

2학기 개학과 동시에 거제·부산 지역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다. 포로수용소에서 6.25의 참상을 공부하고, 유람선을 타고 드넓은 파도를 가르며 거제 해금강의 절경을 구경하였다. 삼성조선소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조선강국이며 큰 배를 만드는 데 페인트 값만도 32억이나 되며, 앞으로 3년 정도는 이미 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2개의 사장교와 1Km의 육상터널로 이루어진 거가대교를 통해 부산으로 이동했다. 다음날은 해운대 백사장의 고운 모래를 만지고, 발가락을 간질이는 파도와 물장난도 치고 아쿠아리움에서는 신기한 물고기를 공부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센텀시티에 있는 백화점을 시장과 비교해 공부도 하고 에스컬레이트와 엘리베이터를 번갈아 타고 8층에서 영화관람에 이어, 사직구장에서 롯데지언츠를 목청껏 응원했다. 저녁을 야구장분위기에 맞추어 햄버거로 하면서 경기가 오후 늦은 시각까지 이어지면 우리 학교 막내동자들이 졸면서 야구 구경을 하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초롱초롱한 눈으로 롯데를 응원했다.

S&T중공업은 지난 4년 동안 꾸준한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2008년에는 제주도, 2009년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2010년에는 서울로 그리고 2011년에는 거제·부산을 다녀올 수 있게 해 주었다. 방학 중 계획 단계에 있던 이번 체험학습은 전학생이 갑자기 늘어 여러 가지 예약사항을 변경하느라 번거롭고 애로가 참 많았다.

◆ 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의 자매결연

2008년부터 세 번째 맺게 된 진주교육대학교와의 자매결연은 대학교수의 전문적인 특강을 들으며 더 넓은 꿈을 가지고 더 높은 비전을 가지게 된다. 국어과와



의 자매결연을 통해서도 서사문쓰기를 익혔고, 미술교육과와의 자매결연에서는 기미교 방식의 수업, 도자기공예와 폴리로봇 만들기 등을 통하여 새로운 미술 방식을 익히게 되었다.

◆ 경상대학교 공학박사의 후배사랑 초청강연

본교를 졸업한 공학박사 공일권 교수와 수의학박사 조규완 교수는 지리산의 꼬맹이들을 초청하여 작은 시골학교 출신이지만 얼마든지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박사가, 교수가,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였다.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고양이의 복제 성공으로 ‘네이처’에도 실리고, 9시 뉴스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유명한 선배 공학박사와 동물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경상대학교 부설 동물병원을 맡고 계시는 수의학박사를 통한 우리 아이들의 꿈 자람은 무궁무진 그 끝이 없다.

◆ 도서지역(거제 칠천초)학교와의 자매결연

도서지역인 칠천초등학교는 규모나 운영이나 학교 특색 면에서 본교와 흡사한 점이 너무 많았다. 재적수도 비슷하고 벽지학교인 점, 학부모가 교육에 관한 관심은 있으나 현실적인 지원은 어려운 점 등이다. 갯벌에서 조개캐기 체험이 있다길래 장화를 신고, 커다란 양동이를 들고 호미까지 들고 간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에 한참이나 부끄러웠다. 갯벌이라고 모두 같은 갯벌이 아닌데 우리의 차림은 참 할 말을 잊게 했다.

산간벽지학교를 방문한 칠천초등학교 학생들이 계곡물의 자연환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던 그 모습이 껍이나 인상적이었는데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하면서 손톱만한 조개캐기에 시간가는 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눈에 참 신기하게 보였을 것 같다.

◆ 도시지역(울산 개운)학교와의 자매결연

2010년부터 맺게 된 울산 개운초와의 자매결연은 홈스테이식으로 운영되는데, 1대1 자매결연으로 가정간 예절이 다른 것도 체험하고 지역마다 다른 식습관도 배우게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삼장에는 아파트도 없고 공장도 없다. 작년에 홈스테이한 집에 개운초 학생이 가도록 연결하였는데 삼장에서는 저녁 반찬의 90% 이상을 지리산 명물인 삼겹살로 대접하고 별이 쏟아지는 여름 밤도 느끼고, 물에서 물놀이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다. 10월에는 다시 개운초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면서 손꼽아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 부산 동의대학교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멘토링 캠프

부산동의대학교 교직원동아리와의 자매결연으로 시작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멘토링 캠프는 대학생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하여 많은 것을 나누게 되었다. 대학생을 볼 수 있는 경험이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처음에 주눅거리던 아이들은 헤어지는 날 꼭 껴안고 대학생 선생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던 모습을 보였다. 2박 3일간의 캠프를 마치며 타임캡슐을 소중히 학교 화단 한모퉁이에 봉인하였다. 30년 후 소중한 나의 꿈이 이루어진 우리 아이들이 환한 웃음으로 그 봉인을 풀 날을 기다려본다.

◆ 진주 보건대학교 봉사활동으로 파마하는 날

인근 지역의 보건대학교 학생들의 의료봉사활동도 우리 아이들의 체험 학습에 한몫을 한다. 미용과 학생들의 미용 봉사활동은 할머니들과 유치원, 1학년 아이들이 함께 퍼머 수건을 두르고 앉아있는 진기한 모습을 연출하였고, 치위생과 학생들은 교실까지 직접 찾아와 불소용액을 꼼꼼히 발라주며 아이들의 입 속 위생을 책임져 주었다. 구석진 삼장의 환경도 깨끗이 정화해 주고 학교와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애쓴 봉사활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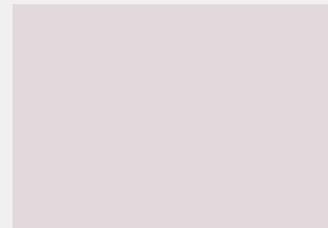
◆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는요~~삼장초등학교예요!

산학교류로 제공되는 체험학습, 진주교육대학교의 조소·공예 미술 교수님 특강 수업, 도서지역의 갯벌체험, 도서지역의 홈스테이식 자매결연학교 운영 등은 3월 1일자 33명이었던 전교생 수가 9월 1일 현재 42명으로 24%의 학생수 증가를 보여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종 자매결연, 산학협정 교류 등에 관한 조인식을 맺고 하나하나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 줄 모른다.

아이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우리 학교 교직원들의 수고로움이 있었기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으리라. 올해부터 1,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고시가 변경되어 창·체에 대한 시간 안내와 세세한 활동 안내, 자매결연학교 학생들이 본교를 방문했을 때 우리학교 주도의 프로그램 기획, 체험학습의 기회는 많으나 교과와 연계하고 시사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마음을 졸였던 것들은 이제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은 연수 기회를 주었고,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였다.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지역민과 학부모님, 학교장의 운영철학에 맞추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발전하고자 나아가는 교직원들, 여기에 아끼지 않는 지원이 함께 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해가는 21세기 주인공이 길러질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가 한 마음이 되어 행복한 아림교육을 실현합니다



박 성 채
거창 아림초등학교 교장

01



1. 학부모 참여의 중요성 인식

최근 들어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러 제약 요인에 의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림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어려운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02



2. 학부모 참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어려운 요인으로 첫째, 시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학부모들의 학부모 총회 참여가 어려운 시대적 요인을 극복하고자 아림초등학교에서는 올해로 2년째 야간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약 500여 명의 학부모가 학부모총회(3월 25일)에 참석하고, 이어진 담임과의 면담에서는 밤늦게까지 자녀교육을 상담하기도 하였다.

03



둘째, 사회·심리적 요인이다. 학부모는 무의식중에 학교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아림초등학교는 학부모와 학교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해왔다. 가족과 함께하는 학교행사 개최, 학부모의 자아실현 프로그램 마련, 책사랑방 활동으로 학생들과 한걸음 더 다가가게 한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학교행사 개최] 4월 1일 아림과학새싹잔치를 개최하여 학부모와 함께하는 과학교실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부스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5월 3일 스포츠파크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림가족한마당큰잔치를 개최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율을 높였다.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학부모 영어회화 기초반을 개설하여 무료로 주 2회 원어민 강사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 오카리나 동아리인 '흙소리 오카리나 합주단'을 구성하여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학예회와 여러 지역 축제에 참여하여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5월 20일 실시한 학부모체육대회에는 2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여 배구, 달리기 및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 01 학교교육계획 안내
- 02 학부모 상담
- 03 아림가족한마당 큰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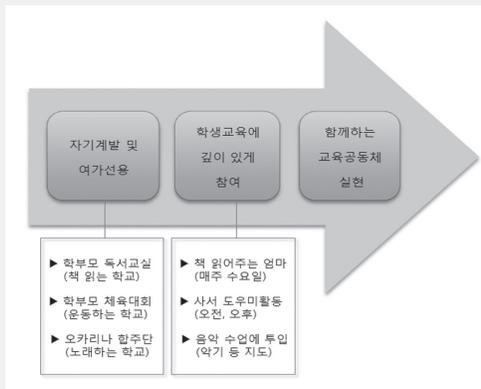
[책사랑방 활동] 학부모 독서토론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선정하고 선정된 책은 매주 수요일 ‘책 읽어주는 엄마’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의 거리감이 점점 사라지면서 학부모 독서토론 동아리 회원들의 요구로 지난해 ‘순천기적의도서관’ 탐방에 이어 올해에는 ‘진해기적의도서관’을 탐방하며 독서지도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해 나가고 있다.

학부모 참여가 어려운 셋째 요인은 정보적 요인이다. 학생들이 학교의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아립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안내장을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핸드폰 문자 등으로 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로 현재 아립초등학교는 홈페이지가 매우 활성화되어 일부 게시 글은 2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교육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문화가 조성되었다.

3. 학부모 참여 노력의 성과

지난 해에는 이러한 학부모참여 사업의 실적을 인정받아 학부모 학교 참여 우수 학부모회로 교과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2010.11.30), 이 밑바탕 위에 2011학년도 현재 아립초등학교는 올해에도 여러 학부모 참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학부모교육 지역중심학교, 평생교육 등 총 3가지 사업이 그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여러 사업을 통해 자기 계발과 여가 선용은 물론 학생교육에도 깊이 있게 참여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주체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학부모 학교 참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와 학부모가 한마음이 되어 교육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2011학년도 아립초등학교 교육은 매 순간 행복하게 완성되고 있다.



(학부모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공동체)



05 학부모 영어회화반

06 오카리나 합주반단

06 책 읽어주는 엄마

자신만만형의 학습지도방법



변 경 오

한국학습클리닉창원센터 소장

심리상담에서 심리검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 분명 사람마다 독특성이 있지만, 이를 몇가지 중요한 공통점으로 묶어서 생각이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심리검사이다. 성격이란 주제로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지만 실제로 검증되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검사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정확한 심리검사라고 하더라도 정확도는 70~80%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하려면 검증된 기관과 전문가에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알아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적합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상담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학습심리검사를 활용하여 아이의 유형을 확인하고 아이에게 적합한 학습 컨설팅을 하게 된다.

자신만만(15, 가명, 중2)군은 공부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말만 잘하고, 가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다 했다고 하는 등 부모님을 속이는 것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문제 때문에 찾아왔다. 자신만만군을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습유형이 자신만만형으로 나타났다.

자신만만형(E)은 자신감이 중요시되는 유형이다.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좋아하되 자신이 나서서 발표하는 데 적극적이므로 간략하게 강의를 하고 난 후 토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수업을 더 좋아한다. 교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보상이 주어지는 학습활동에 더 적극적이다.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칭찬해주면 더 효과적이다. 칠판에 직접 써가며 직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신만만형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경쟁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공부도 잘

하고, 반장과 같이 학교에서 리더의 성향을 발휘하게 된다. 반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자신을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현실과의 갈등으로 인해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어려운 일은 빨리 포기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자신만만군 역시 낮은 성적으로 공부보다는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부는 하지 않고 운동에만 몰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학습지와 기타 학습에 관련된 것은 등한시한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지 않은 것조차 열심히 했다고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특성의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의 정직하지 못한 때문에 한 번 더 놀라게 된다.

이런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과장을 하게 된다. 자신만만형의 아이들의 최상의 처방은 '칭찬'이다. 사실 이런 아이들의 경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과연 칭찬을 해도 될까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래서 칭찬보다는 야단을 먼저 하게 되고 야단을 맞은 아이는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무리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사실 칭찬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와 그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만만군의 부모 역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했고, 자신만만군은 과장하지 않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성과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었다.

이처럼 자신만만형의 아이들의 경우 말을 잘하고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하는 능력이 과장이나 거짓말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다. 분명 그러한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이를 지지해주고 받아들여 주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민학교’ 인도 봉사활동



이 명 속

마산신월초등학교 교장

『글로벌 시민학교 라운딩』

NGO 단체 굿네이브스 자문위원으로 ‘글로벌 시민학교’ 봉사활동 참석 차 인도의 남부에 위치한 뱅갈로르에 가게 되었다. 홍콩을 경유하여 뱅갈로르에 도착하니 인도 시각으로 새벽 2시. 입국신고가 복잡하여 늦게 심사를 마친 일행은 6시간이란 긴 시간을 신호등 하나 없는 ‘무두말라이’ 사업장으로 향했다.

이 지역은 간간히 꽃사슴과 원숭이, 코끼리, 공작 등이 거리에 나와서 반겨주기도 하는 자연과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넓은 정글이다.

사업장에 도착하여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을 할 ‘무두말라이’ 지역에 있는 사업장 라운딩을 위해 먼저 GRG 사립학교를 방문했다.

GRG 사립학교에서는 타밀언어(지역언어)와 영어도 배우고 있으며 스쿨버스가 있어 이 지역에서는 제일 환경이 나은 학교로서, 760명 중 80명은 아주 가난한 학생으로 한국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사립학교인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생들의 눈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듯하며, 우리 봉사단이 준비한 연필 한 자루에도 만족해하는 학생들의 환송 눈길을 뒤로 하고 한국 NGO 단체 굿네이브스에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에 갔다.

직업학교에서는 16~25세 정도의 여자아이들이 컴퓨터와 재봉틀을 배우고 있었다.

인도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 시차가 큰 지구 반대쪽의 미국 등지에서 야간에 할 수 없는 컴퓨터 작업(예를 들면 신용카드 작업이나 통계작업 등)을 인도사람들에게 시키는

데 이 직업학교에서 배출한 여자아이들이 인도에서의 IT 산업 열풍에 동참하고 있었다.

우리는 공립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보카푸람 스쿨로 갔다. 이 학교는 공립학교로 국가에서 발령한 3명의 교사가 있고 한국 NGO 단체의 후원금으로 보조를 해준 교사가 3명이었다. 주와 주 사이에 위치한 열악한 환경이고 장거리 부족민들의 자녀 100명 정도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기숙사 생활 전에는 결석이 잦았다고 한다. 한국 NGO 단체에서 후원한 보조교사의 도움으로 학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낙제도 적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제일 가난한 동네 68명이 다니는 아나카티 분교도 방문했는데 교장 1명, 교사 1명인데 한국 NGO 단체에서 교사 2명을 더 지원했으며, 이 학교에서 의사가 탄생하여 마을 축제를 했다는 자랑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벵갈로르에는 NGO 단체 굿네이브스에서 ‘치크잘라 데이케어 센터’를 설치해 탁아소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여 부모들이 채석장에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모교육을 통해 문맹퇴치도 함께 하여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사업장을 라운딩하고 난 우리 봉사단은 인도의 오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한국에서 인도의 문맹을 퇴치하려는 의지로 각 학교에 교사를 파견한 일, 교육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학부모 교육, 소득을 올려 잘 살게 해 보려는 기술교육,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 활동 등을 보면서 한국 NGO 단체의 봉사정신과 인류애를 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일들은 NGO 단체의 사업뿐만 아니라, 인도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홍보대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의 이미지를 깨고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 보카푸람 스쿨에서의 수업 』

우리 봉사단은 공립학교인 보카푸람 스쿨(부족민들의 복지를 위한 공립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학교의 담장 쌓기와 도색 작업 등의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전교생 160명의 초·중학생들이 우리 봉사단을 환영하기 위해 운동장에 모여 카레 열매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1~2, 3~4, 5~6학년 복식수업을 하며 1~4학년은 주로 활동중심 수업이고 5~8학년은 교과서 중심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울 수준이 낮아 주로 인도 언어인 타밀 언어를 배우며 부모들은 대부분 정글에서 생활하여 교육열이 아주 낮다고 한다.

우리는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미술수업으로 태극부채를 만들기로 했는데 4~6학년 모두 60명 정도를 야외로 데리고 나와 견본으로 가져간 태극무늬, 기와무늬, 춘향 도령 무늬 등을 보여주며 부채를 만들 준비를 했다.

아이들은 즐거운 눈빛으로 열심히 부채를 만들고 꾸몄으며, 가위질이 서툰 인도 아이들과 우리 자문단은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활동을 했다. 나는 부채 뒷면에 먹물로 사군자를 그려주기에 바빴고 인도 아이들은 서로 자기 부채에 먼저 그려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창의력이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만들려고 한 부채보다 훨씬 더 창의적으로 부채를 만들고 꾸미는 것을 보면서 인구 대국의 인도 아이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수업을 마친 후 ‘대한민국’ 구호에 박수로 박자를 맞추었으며 아리랑도 함께 열심히 따라 부르는 인도 아이들을 보면서 인도 사람들의 맑은 눈동자가 새삼스럽게 더 맑게 느껴졌다.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한 캠페인,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이야기.

“내 친구를 학교로 보내주세요!”

“밭에 가기 싫어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아직도 열망에 찬 인도 아이들의 목소리가 선연히 들리는 것 같다





영재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최 미

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8월 9일(화)

아침에 6시 모닝콜에 놀라 눈을 떴다. 오늘은 사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시작하는 힘찬 국제캠프의 첫 날이다. 그동안 영재강사들과 각고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발걸음으로 도약할 마음이라 괜스레 설레었다. 오늘은 상해한국학교 방문 일정인지라 너무 가볍지 않게 방문복장으로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출발! 상해로!

사천읍 육교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영재학생과 강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면하자, 이윽고 우리를 김해국제공항으로 실어 나를 관광버스가 도착하였다. 얼름 단장님께 인사드리고 우리는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는 MU5044 동방항공편 12시 35분이었으며, 1시간 20분 소요로 태풍 무위파의 영향을 받아 어려움이 많았으나, 오늘의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시차는 중국 본토와 정확하게 한 시간,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왼편으로 도니 한 시간 이익이었다. 도착은 원래가 1시 55분이었지만 중국시간으로 1시 15분경 상해 현지가이드와 미팅을 해서 상해한국학교로 이동하였다.

상해한국학교 김현수교장선생님, 김태일교감선생님께서서는 상해에 있는 한국경상남도정부상해대표소속이신 박희영대표와 최규철부대표님의 관심과 배려로 벌써 소개자료와 환영인사를 준비하셔서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다.

상해한국학교는 초·중·고등학교가 외국학교의 체제로 학년마다, 영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재량활동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이 2009개정교육과정 운영으로 도입되어 새로운 교육의 장이 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이윽고 기념촬영을 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상해에서 가장 변화한 남경로 거리를 우리

영재학생들과 함께 걸었다. 보이는 것마다 신기하고 웅장한 멋스러움이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특히 19C 상해가 외세문명을 받아들였던 시기의 건축물들이 특히 눈길을 잡아챘다.



저녁을 먹고 서커스를 관람한 후 항주로 이동했다. 350km거리에 있는 항주는 남송시대의 도읍지로 관광과 문화 그리고 한참 뜨고 있는 웰빙도시로서 손색이 없으며 생태환경이 뛰어나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중국 최고라고 한다.

부방호텔에 도착하니 눈꺼풀이 스르르 풀리면서 절로 잠이 오는데, 학생들은 신비로운 미지의 나라 중국여행에 들떴는지 피로한 기색도 없었다. 나머지 일정들을 위해 여장을 풀고 자리에 들자마자 잠이 들었다.

8월 10일(수)

오늘은 항주에서의 뻑뻑한 스캐쥴로 인해 5시 30분 모닝콜, 6시 20분 조식뷔페, 그리고 7시 30분에 숙소를 나와서 오산 성황각, 성황묘, 그리고 화항공원을 돌면서 서호10경을 유람하였다. 서호에서 유람선을 타고 둘러본 항주라는 도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조용한 옛스러움이 북경의 유명한 서태후의 이화원과 는 사뭇 대조적인 분위기였으며, 근처에 있는 화항공원의 연못에서는 잉어가 얼마나 크고 살찌는지 관광객이 먹이를 들고 서면 연못이 붉게 물드는 저녁노을 같았다. 38도의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의 산책을 마치자,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더위를 이기려고 단단히 무장을 한 채 또다시 길을 나섰다. 다음 일정은 청소년 궁이었다. 먼발치에서 보자마자 청소년 궁의 화려한 외관에 시선을 끌었는데, 청소년 궁은 우리의 청소년문화센터와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는 공간으로 그 엄청난 규모에 놀라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의에 또 한번 놀라 더위도 짝 가시는 듯하였다.

청소년궁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용정의 녹차산지를 방문하였다. 이곳은 중국의 소수민족의 주거지로 중국 전통제가 추천한 녹차라고 하니 고국에 있는 지인들을 위해 작은 선물도 준비하였다.

저녁을 먹고 송성가무소를 보게 되었는데, 시간이 일렀는지 불상참배를 위해 영재강사들과 무심히 보조를 맞추다가 나도 모르게 남자화장실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관리인의 제지로 황망해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쇼는 정말 대서사시를 보듯 항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웅장한 규모로 구성하였으며, 미인들과 무대연출에 감탄을 자아내며 한 시간여 관람하였다.

무대장치의 화려함과 레이저 빔을 이용한 과학적인 시도는 정말이지 화려함 그 자체였으며, 우리는 다시 밤더위를 벗삼아 상해로 이동하였다. 잠깐 눈을 붙인 것 같았는데, 서울에서

부산거리의 상해에 도착해서 또다시 숙소에 들었다. 학생들을 입실시키고 영재교육의 화려한 지평선을 약속하며 단장님과 감사선생님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단장님께서서는 국제캡프를 통해 업그레이드 된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한 영재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는 격려 말씀을 해 주셨다. 밤은 깊어 객실에서 모닝콜을 맞으니 6시 30분이었다. 오늘은 가장 화려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8월 11일(목)

오늘은 상해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1919년 이후 이곳에서 막을 연 임시정부는 영국인 거주마을에서 중국정부의 관리하에 우리를 맞으니, 서글프기 짝이 없었다.



그래도 김구선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투사들의 사진과 정부수립 문서들을 지켜보면서 참 젊은 나이에 불굴의 애국심을 불사르신 호국선열들께 새삼 감사의 마음을 아로새겼다.

이석영 이회영 형제 일가는 650억 원이라는 재산을 모두 독립투쟁을 위한 군사학교를 설립해서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만주에서 의롭게 살다 가셨다는 일화도 새로웠다.

상해박물관, 상해과학기술관 도시계획관을 방문하니 황포강에 새로운 도시가 화려한 야경을 뽐고 있다. 유람선을 타고 고향과 가족들을 그리워하니 실비가 살짝 유리창을 적셔준다.

외탄야경에선 뽀뽀해드 눈에 띄는 최고의 건축은 상하이 월드파이낸셜센터였다. 동방명주타워 옆 병따개같이 생긴 건물로서, 1990년대 후반에 굉장한 건축물을 구상한 기획가가 투자설명회를 유치해서 6500억이라는 자금으로 착공했다 그러나 상해의 무른 지반 위에 100여 층의 높이를 이겨낼 말뚝을 박고 공사 진행 중, 불황 때문에 무산되고, 또다시 5년의 침묵 속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전에 새롭게 건축되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층의 건물로서 9.11테러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최첨단공법설계로 12층마다 신선한 산소를 마시며 구조를 기다리도록 피난처를 갖추고 있다는 후일담이었다.

나는 무역센터 대신에 교육센터를 꿈꾸었다. 그것이 물론 꿈으로 그치는 순간이 오더라도 사천과 진주를 하나의 복합 도시로 사천만을 끼고 도는 남강의 야경을 꿈꾸며 돌아오는 순간 가슴이 벅찬 감동은 나만의 것은 아니리라.



학습지도연구대회의 새로운 물결



김 선 임

창원 전안초등학교 교사

학습지도 연구대회, 교내 공개수업을 볼 때마다 내 마음 속에 일고 있는 물결은 나도 수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나라면 이렇게 저렇게 전개할 것인데 나도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막상 도전하려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기다리고도 있음을. 나이, 경쟁 높은 예선 대회 통과 관문, 주위 선생님께 부담을 주는 것 등으로 꿈을 포기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꿈틀거림을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세 번째의 도전을 하게 되었다.

지도안 쓰기 준비부터 만만치 않았지만 배운다는 기쁨이 또한 즐거움이었기에 수업에 대해서만은 고민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방학동안 수업자 및 동료 선생님들과의 주 1회 미팅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한 좋은 수업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한 편의 지도안을 완성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특히 체육부분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막막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신선한 충격이 되기도 하였다. 참! 그 나이에 웬 체육이냐고요? 땀방아 아래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을 즐겨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창 성장해 가는 아이들과 함께 흠뻑 땀 흘리며 뛰는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여 체육전담을 맡았기 때문이다.

“요즘 아이들은 운동을 너무 안 해요”, “운동뿐인가요? 놀 줄도 몰라요. 컴퓨터 게임이 최고랍니다.” 그러나 3학년 아이들은 달랐다. 너무도 왕성하게 지칠 줄 모르고 뛰고 또 뛰는 것을 좋아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왕성한 활동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바람개비가 바람으로 활기차게 돌듯 이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시켜 주자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교재 연구를 하였고, 하는 만큼 아이들의 반응도 달랐다. 이에 때마침 3학년 체육과목이 학습지도 연구대회 과목으로 선정되어 예선에 떨어지더라도 교재 연구는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용감하게 도전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너무도 평범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준수하였는데 첫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분석이었다. 3학년 표현활동 영역이었는데 지도서를 통해

이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여 단위 목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또 분석하였다. 또한 요즘 대두되고 있는 PCK(내용교수지식)이론을 바탕으로 기초와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면서 정확한 학습 개념을 심어주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은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의문을 거듭하면서 명확한 개념 정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우리교육청에서 실시한 자료 총량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과연 이 한 시간을 위해 실제 수업에서 이 많은 자료가 투입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최소한의 자료를 사용하고 최고의 자료인 교사를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교재연구를 통해 수업의 본질추구에 충실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 눈높이에 맞는 마중물 대화를 통한 수업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학습이해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개별지도를 통하여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고 눈 맞춤을 통해 교사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교감을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끼기에 아이들 눈빛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다. 칭찬을 먹고 자라는 꿈나무들이기에 끊임없는 칭찬이야말로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음을 우리 교사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학습지도연구대회 수업이 끝난 후 어느 선생님의 말이 계속 귓가를 떠나지 않고 있다. “선생님 수업은 일등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자기반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하는 것 같이 편안한 수업이었다.”고. 그리고, “감동이 있는 수업이었다.”고. 기분 좋은 그 한마디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한다. 아! 이럴 때 교사라서 참 행복하다.



누구다 다 알고 또한 실천하고 있는 새삼스런 이야기를 나열하고 나니 왠지 축스러워진다. 그 동안 자기 일처럼 성심성의를 다해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이 영광을 함께 하고자 한다.



맞춤형 학부모연수 - 독서지도사 과정을 마치며



박 정 희

김해 대청초등학교 6-3 윤나영 학부모

푸근한 4월 봄날, 대청초등학교에서 시작한 효과적인 자녀의 독서지도를 위해 개설된 독서지도사 과정이 4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나고, 어느덧 가을바람이 느껴지는 9월이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로서 이런 배움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는 없었던 저희들에게 이번 연수는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당하신 임혜진 선생님, 박경량 지도강사님 그리고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 저희들에게 뜻 깊은 졸업의 자리를 갖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영광의 자리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돌아켜보면, 지난 4개월은 한 뜻을 모아 공부한 동료들 간의 끈끈한 우정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던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습니다.

따갑게 느껴지는 가을의 늦더위가 들녘의 곡식을 여물게 하고 과일의 단맛을 무르익게 하듯이, 비록 늦게 시작한 독서지도사 과정이었지만, 대청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식의 날알을 영글게 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부족함이 많은 제 1기 졸업생이지만 더 발전되고 완성된 다음 수료생들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졸업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청초등학교의 무한한 발전과 선생님들과 졸업생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평안을 바라리며 이만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5일

대청초등학교 독서지도사 제1기 졸업생 대표 박정희

작품명 : 장미



향기로운 만큼
많은 사람들의 영원한 사랑의 테마를
담고 있는 꽃 장미

햇살 나지막한 가을날 오후에
함께하는 몇 송이 장미는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황 수 희

- 한정원유목초등학교 교사
- 한국미술협회, 창원미술협회, 경남수채화협회, 초등미술교육 연구회
- 교원에능연구대회 한국화, 서양화 1등급
- 교원 작품전, 초미회전, MBC 자연 기행 스케치전, 경남 환경미술 협회전, 경남 수채화 협회전, 남부 Watercolor Festival, 창원미술협회전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

2011.경남 독서문화축제

"경남!
책을 펴다"



2011/10/14(금) ▶ 16(일) 창원용지문화공원(경남신문사 앞)

주최  경상남도교육청 주관  경상남도청소년자원봉사협의회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창원KBS, MBC경남,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신문, 경남신문, 경남일보, 연합뉴스경남취재본부, 서경방송, CJ헬로비전, STX

"경남은 지금 독서중!"

